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09.09

www.airforce.mil.kr Vol.375

공군

Monthly Magazine Air Force

2009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제주국제관악제
8. 12~20



기획특집 1

제주국제관악제에 참가한 공군군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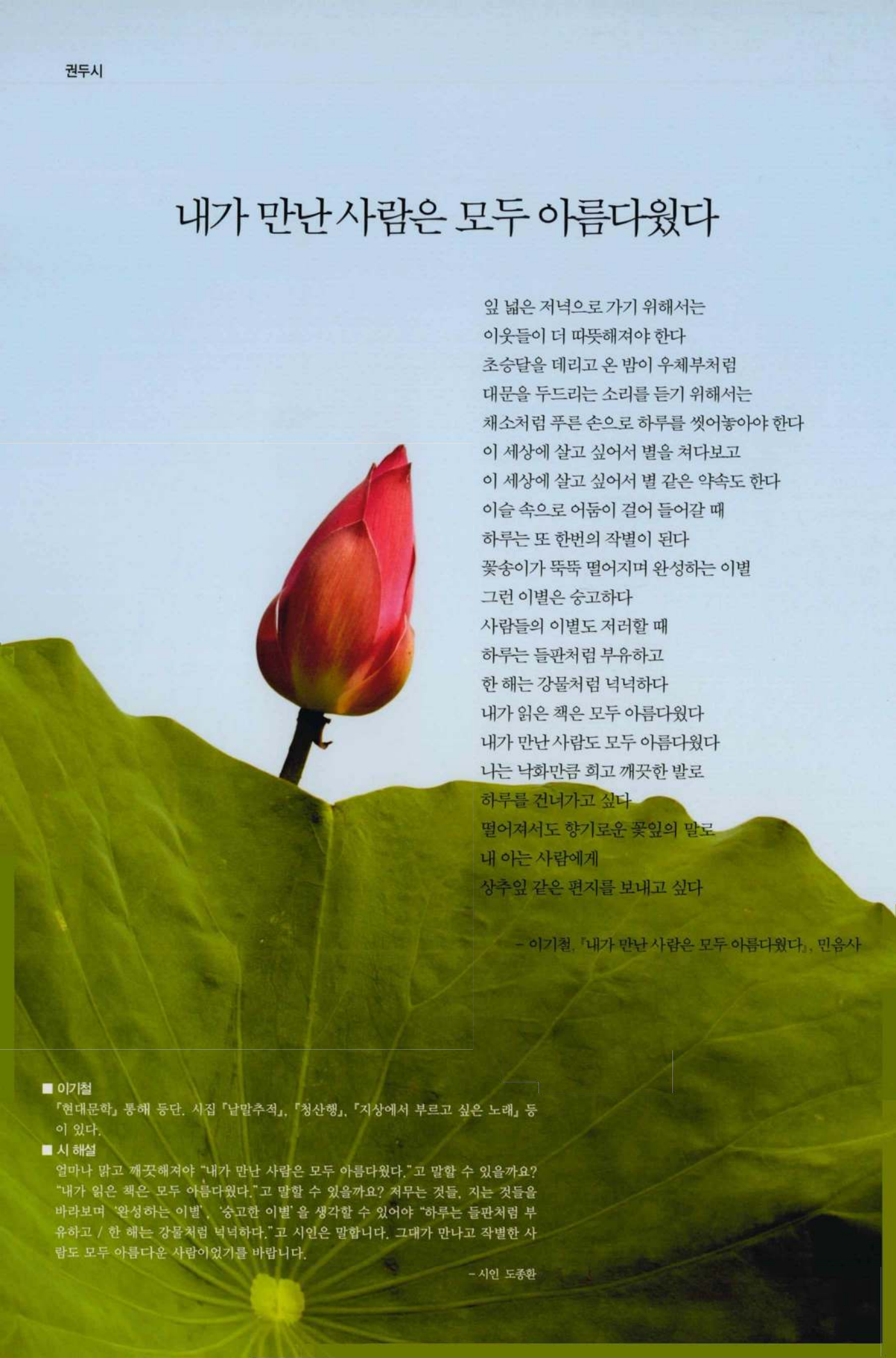
기획특집 2

《이등병이 쏜다》 1주년 특집

만화로 보는 공군역사 상징인물 3

빨간마후라의 표상 김영환 장군(하)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앞 넓은 저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더 따뜻해져야 한다
초승달을 데리고 온 밤이 우체부처럼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채소처럼 푸른 손으로 하루를 씻어놓아야 한다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을 쳐다보고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 같은 약속도 한다
이슬 속으로 어둠이 걸어 들어갈 때
하루는 또 한번의 작별이 된다
꽃송이가 뚝뚝 떨어지며 완성하는 이별
그런 이별은 숭고하다
사람들의 이별도 저러할 때
하루는 들판처럼 부유하고
한 해는 강물처럼 넉넉하다
내가 읽은 책은 모두 아름다웠다
내가 만난 사람도 모두 아름다웠다
나는 낙화만큼 희고 깨끗한 발로
하루를 건너가고 싶다
떨어져서도 향기로운 꽃잎의 말로
내 이는 사람에게
상추잎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다

- 이기철,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민음사

■ 이기철

「현대문학」 통해 등단. 시집 「날말추적」, 「청산행」, 「지상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 등이 있다.

■ 시 해설

얼마나 맑고 깨끗해져야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읽은 책은 모두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무는 것들, 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완성하는 이별’, ‘숭고한 이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루는 들판처럼 부유하고 / 한 해는 강물처럼 넉넉하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대가 만나고 작별한 사람도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었기를 바랍니다.

- 시인 도종환



CONTENTS

2009.09

www.airforce.mil.kr Vol.375

- 04 명사로부터 듣는다 _ 준비된 강한 공군으로 거듭나자
- 06 기획특집 1 _ 제주국제관악제에 참가한 공군군악대
- 12 창공 글터 _ 애호박, 풀숲의 뜨거운 눈시울
- 14 기획특집 2 _ <이등병이 쓴다!> 1주년 특집
_ 내 생애 최고의 선배에게
- 18 Hot Clip! _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의 場, 2009 공군항공우주캠프
- 20 참모총장 스케치
- 21 공군은 지금
- 22 World-Wide Vision _ 공중 재급유(Refueling)
- 26 e-Sports, <ACE> _ 공군 ACE, 틈새시장을 노립니다
- 30 Beauty 바이러스 _ 면도와 제모
- 32 정홍래의 음악산책 _ 클래식 음악가, 이 사람만은 기억하자 ㉓
- 34 책마을 _ 나를 다스리는 묵직한 침묵
- 35 Preview _ 9월의 문화행사
- 36 창군 60주년 특집 8 _ 만화로 보는 공군역사 상징인물 3, 김영환 장군(하)
_ 9월의 공군역사
_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㉔
- 44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꿈의 낙원을 향해 날다
- 46 Bird Alert! _ 지르레기 생각
- 50 생각하는 그림 _ 지켜야만 하는 것
- 52 전재인의 일상茶반사 _ 400년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정호다완
- 54 장병 기고 _ 영어정복을 향한 유쾌한 한 걸음
- 56 Letters to the Editor _ 2009년 7월호를 읽고서

표지설명 : 2009 제주국제관악제에서 연주하는 공군군악대와 사회를 보는 조인성 아병
표지사진 : 상사 김경률 | 공군본부 공보과

공군 September 2009 No.375

발행일자 | 2009년 9월 4일(통권 제375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장(진) 김규진

기획·편집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 기용호

디자인·인쇄 | 국군인쇄창

* 본 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준비된 강한 공군으로 거듭나자

Peace Eye란 애칭으로 잘 알려진 조기경보기 E-737이 2011~12년에 4대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전쟁과 반전쟁”에서 공군무기체계의 변화와 발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미군 조종사들은 월남전에서 탄호아 교량을 파괴하기 위해 800회나 출격하여 항공기 10대의 손실을 입고도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레이저유도 폭탄이 등장하고 난 이후 초기 스마트 폭탄을 적재한 F-4전폭기 4대가 단 한차례 출격으로 이 일을 해냈다.” 그리고 “오늘날 F-117 한 대가 단 1회 출격하여 폭탄 한 개를 투하하는 것은 2차대전 중 B-17폭격기가 4,500회 출격하여 폭탄 9,000개, 또는 월남전 기간 중 전투기들이 95회 출격하여 폭탄 190개를 투하했을 때와 동일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비유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항공무기체계의 성능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고 그로 인해 전쟁 수행에 있어 항공력의 역할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예로 든 F-117은 벌써 도태 단계에 와 있는 만큼 항공 무기체계도 더 큰 변화와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인공위성, 유·무인 정찰기, 그리고 각종 통신 전자 정보수집 수단들은 몇십 센티미터 크기의 목표물도 식별할 수 있고 야간이나 악기상 조건에서도 계속 적정을 감시

할 수 있다. 정밀 폭격능력은 레이저유도, GPS유도, 영상추적 등 다양한 수단으로 그 정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되었으며 지하 깊숙한 보호시설에 숨겨진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적 방공망 밖에서의 원거리 폭격을 통하여 우리 항공기의 손실 없이 공격이 가능하게 되어 항공작전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투기 한 대 없이 L-4, L-5, T-6와 같은 연락기, 훈련기 20여 대로 6·25전쟁을 맞아 맨손으로 폭탄을 투하하며 싸웠던 우리 공군이 최신 정밀무기를 갖춘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게 될 만큼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 공군의 전력은 아직 심각한 불균형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 항공력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수집능력, 전장감시능력, 그리고 원거리 전력투사를 가능케 하는 공중급유능력 등 공중작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력들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전무하여, 이러한 분야는 전적으로 미공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고가의 장비들은 연합전력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군을 운영하는 것이 지혜로운 정책이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정기간 또는 극히 특수한 분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창군 60주년을 맞은 지금까

지도 항공작전의 필수 요소들을 미군 전력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심각한 전력의 공백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공군도 정보수집 및 조기경보능력, 전장감시능력, 장거리/정밀타격능력, 대탄도탄 방어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현대화된 전술 개념하에서는 그 전투력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30~40년된 노후 전투기들의 교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응하는 감시·정찰 정밀타격-요격-방호능력을 갖춰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필요시 적절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력들은 하루아침에 갖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문제로 근접전용의 전술무기들보다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창군 60주년을 맞은 우리 공군이 빠른 시일 안에 정보수집부터 타격에 이르는 균형된 전력을 갖추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합동작전상황에서 합리적인 전력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공작전과 합동작전에 대한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급 교육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 합리적인 보직관리를 통한 경험부여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우리 공군요원 개개인이 우수한 기술요원, 강력한 전투요원일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넘어 합동교리, 전략, 전술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공군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방부, 합참의 인력 구성에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한미연합사 중심의 작전통제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육군 중심의 현 합참 인력구조가 큰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작권 전환을 고려한다면 현 구조로는 결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합동작전 체제를 구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인력구조 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 군대의 조직편성을 보면 각 군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장을 정하면 부장, 처장, 과장 등은 각 군 요원을 지그재그로 편성하여 모든 의사결정에서 합동작전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주요직위가 특정 군에 편중되면 전력증강이나 전시 작전운영에 완벽한 합동성을 추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공군의 인재들이 국방정책 결정 핵심부서와 합참의 작전, 전략부서에 고루 배치되어야 소요계기에서부터 군사력 건설, 작전계획



공중급유 훈련 중인 미 공군 KC-Stratotanker와 F-15, F-16 각각 2기

의 수립, 그리고 작전운영에 이르기까지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으로서의 공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대비태세의 유지다. 우리 공군은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항공기와 첨단 탑재장비, 그리고 각종 무장을 완벽하게 정비하고 이륙하여 항법, 적 위협 회피, 표적 획득, 정확한 사격, 안전한 이탈 및 귀환 등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 소터의 출격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공군의 평시 작전 및 훈련은 전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백만분의 일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미비점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휘관리가 필요하고 크고 작은 소임을 맡은 각 개인은 매일매일 새로운 각오로 임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창군 60주년을 맞은 우리 공군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안보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떤 형태의 적 도발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력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합동작전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새로운 60년에 대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준비된 강한 공군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㉔



이 한 호
- 공사 총동참회장
- 제28대 공군참모총장

제주국제관악제에 참가한 공군군악대

☞ 소위 김지훈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사관 상사 김경률 | 공군본부 공보과

공군군악대가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세계 관악인들의 축제, 2009 제주국제관악제에 참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제주국제관악제는 199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란?

금빛과 은빛을 뿜내는 관악기가 제주의 바람과 햇살과 만나면 더 눈부시다. 눈부신 관악선율이 함께하기에 제주의 여름은 한 층 뜨겁다. '바람을 타는 섬'에서 바람을 타고 흐르는 관악선율은 제주의 1만8천 신(神)들까지 춤추게 만든다.

올해에는 '제주올레'에서도 관악선율을 만날 수 있으니 올레꾼들까지 금빛 행진에 함께한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2009 제주국제관악제'가 12~20일 '섬,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제주일원에서 열렸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야외연주가 용이한 관악의 특성과 함께 제주가 갖고 있는 평화스런 이미지와 여름철 낭만이 조화를 이룬 제주도의 대표적 예술축제 중의 하나이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토박이 관악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1995년부터 격년제로 시작되었다. 1998년에는 일본, 대만, 독일, 한국에서 참가한 소규모의 전문양상블축제를 마련했다. 대중적 호응이 높고 축제성이 강한 홀수 해의 콘서트밴드축제와 함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짝수 해의 양상블축제가 시작된 것이다. 2000년에는 양상블축제와 함께 국제관악경연을 마련했다.

이 경연은 세계의 젊은 관악인들의 음악적 의욕을 높이고 우정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제주국제관악제와 더불어 2004년에는 제13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 2006년에는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대회가 열린 바 있다. 제주국제관악제의 목표는 홀수 해와 짝수 해가 각기 특징을 달리하여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해마다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열린다. 올해에는 9개국 33개팀 총 1,900명이 참가했으며 그 외 초청 관악인으로 8개국에서 16명이 참가하였다.



Day-1, 공연의 무대인 제주도에 도착

첫째 날은 17비에서 집합하여 수송기로 제주도까지 이동하였다. 출발 전날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연연습으로 준비를 완료한 공군군악대는 제주에 도착해 숙소에서 짐을 풀고 잠시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현재 유럽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관악작곡가인 야곱 드 한의 작품세계라는 특별기획공연을 관람하며 제주관악제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다. 야곱 드 한은 이날 해군군악대와 함께 완벽한 연주를 선사하며 공군군악대원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내일의 첫 공연을 다짐하며 제주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Day-2, 드디어 첫 공연, 스윙밴드의 프린지 공연

공연 첫날인 이날은 '우리 동네 관악제'라는 프로그램에서 스윙밴드의 프린지 공연¹⁾이 있었다. 아침부터 군악대원들은 악기와 장비점검으로 분주한 아침을 보냈다. 공연 3시간 전에 도착한 군악대원들은 무대장비설치와 실전 같은 리허설로 완벽에 가까운 준비를 하였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에 와서 자리를 채웠다. 공연이 시작되자 만반의 준비가 된 듯이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으며 가장 인상적인 것은 관객들이 무대 바로 앞까지 와 군악대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이었다.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날의 공연이 성공적이었음을 알려주었다.



Day-3, 고산초등학교에서 이뤄진 두 번째 공연

두 번째 프린지 공연이 있던 날이다. 이날은 특이하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연이 준비되었다. 더운 날씨에 행사복을 입은 단원들은 비 오듯 땀을 흘렸지만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연주하였다. 공군군악대의 공연 바로 전, 네덜란드 NS Harmonieorkest의 공연이 있었다. 이들은 다음 스케줄로 인하여 바로 이동을 해야 했지만 공군의 열정적인 공연에 이동시간을 줄여가며 관객석을 지켜주었다. 공연이 클라이맥스에 달하자 모두들 약속이라도 한 듯 일어서 공군군악대의 리더에 몸을 맡겼다. 관객들 중 네덜란드 관악팀 소속 연주자의 딸, 에스더 씨는 공군군악대의 곡 선택과 에너지가 넘치는 공연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 '프린지 공연'은 특정 기준에 따라 작품을 선정하지 않고 아마추어에서 전문 예술단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말한다. 각자 제작한 공연과 작품들을 축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특징.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실험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안문화축제'인 셈이다.



Day-3, 공군군악대, 도쿄에서 날아 온 한 일본인을 매료시 키다!!

마지막 스윙밴드의 프린지 공연이 있던 날이었다. 많은 언론매체에서 촬영을 하러 방문하였고 공군군악대의 위상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날 공연은 '제주절물 자연휴양림' 한가운데서 공연이 시작되었다. 공군군악대의 선율이 자연과 어울려 많은 관객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는 기회였다. 매 공연마다 공군군악대를 보러 일본 도쿄에서 날아 온 마유미 씨는 처음에는 공군에 입대한 조인성 이병을 보려고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왔지만 공군군악대의 공연이 진행될수록 모두가 노력하는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공군군악대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Day-4, 공군군악대의 Finale 공연, 제주의 해변을 관악연주로 물들이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공군군악대는 제주해변공연장으로 장소를 옮겨 이번 국제관악제에서 펼쳐질 마지막 공연을 하러 이동하였다. 연주준비를 마치고 제주에서 첫 관악밴드의 연주 리허설이 있었다. 바닷가에서 하는 공연이기에 매우 쉽고 무더웠지만 모두 최선을 다해 리허설을 끝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다.

이윽고 공연이 시작하자 예상보다 많은 관객들이 몰려와 공연장 밖에서 서서 보는 관객들까지 생겨났다. 이번 공연에서는 60명의 일본인들이 공군군악대를 보기 위해 단체 관람을 왔었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방문한 국내의 관광객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다채롭게 준비된 이번 공연은 짧은 스윙밴드의 공연이 아닌 관악밴드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많은 연습으로 준비한 만큼 어떤 공연보다도 빛나는 공연이었다. 공연 후반에는 관객석의 관객들이 무대 바로 앞까지 내려와 군악대를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지휘자인 이상수 중령(작전사령부 군악대장)의 지휘에 맞춰 관객과 함께하는 진정한 축제의 모습이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무사히 마친 군악대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이상수 중령은 "3번의 프린지 공연과 1번의 정식공연에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무사히 공연을 마쳐 매우 기뻐다."며 "짧은 연습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에서 200%의 능력을 발휘한 군악대원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5박 6일 동안 공군군악대원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땀과 노력을 지켜보며 공군인으로서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

었다. 매 공연마다 조금의 실수도 허용치 않고 다음엔 더욱 완벽한 공연을 하겠다는 그들의 다짐에 군악대원으로서의 자존심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공군군악대는 무대 뒤에서 열심히 지원하는 스태프들과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 연주하는 밴드의 팀워크로 최고의 공연을 선사하며 공군의 위상을 널리 떨쳤다. 이런 그들의 피땀 흘린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대한민국 공군군악대 파이팅! 



Surprise Interview



2009 제주국제관악제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조인성 이병(작전사령부 군악대)과의 인터뷰는 “필승! 작사 군악대 이병 조인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란 인사로 시작되었다.

Q 이번 공연에서 조인성 이병이 맡은 일이 무엇인지?

A: 멋진 연주를 펼쳐줄 군악대원들을 위해 제가 멋지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Q 사회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A: 사실 단 한 번의 경험도 없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막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첫 대외활동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A: 오랜만에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드렸고, 또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주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밖에서는 최고의 연기자였는데 이번 활동할 때 떨리지 않았습니까?

A: 제가 사회를 처음 보는 거라 설레고 떨리기도 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제가 전문 사회를 봤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많은 박수를 쳐주셔서 지도 힘을 내서 사회를 봤습니다.

Q 이번 사회를 본 것은 만족하셨습니까?

A: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연기할 때 역시 단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었고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기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군대에서 배워서 사회 나가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Q 군악대원들에게 한마디

A: 부족하지만 이해해주시고 챙겨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Q 관객들에게 한마디

A: 군복무 하는 동안 멋진 공군으로서 멋진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활~작

모든 장병이 웃는 그날까지
인권과가 함께 하겠습니다.

☺ SMILE 인권상담 채널

인권상담 홈 : [인트라넷 \[인권상담\]](#)

상담전용 메일 : SOS@af.mil

상담전용 전화 : 국번없이 0117

여성전용인권상담전화 : 920-6444

공군법무실

如如山房에서 보내는 편지

- 애호박, 풀숲의 뜨거운 눈시울 -

글 양문규 | 시인, 창공클럽 회원

지난주 산방을 사나흘 비워두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작은아이는 해외여행이 처음인지라 이국의 풍물에 큰 관심과 애정이 있따랐습니다. 특히 작은아이는 처음 타게 된 비행기가 그리 좋았나 봅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저는 즐거움보다 산방을 비워야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장맛비로 부엌천장으로 비가 새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 혹 비워둔 사이 많은 비가 또 몰려오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연꽃을 비롯한 들꽃들이 혹 불별터위로 목숨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일었지요. 물론 옆집 아주머니에게 이것저것 세심하게 부탁드리긴 했지만 이래저래 마음이 놓이지 않긴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이왕 여행을 하기로 하였으니 산방 대신 가족에게만 신경 쓰기로 하였지요. 그런 덕분인지 별 탈 없이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주도 신혼여행 이후 비행기를 타게 됐다며 작은아이처럼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큰아이는 해외여행이 아니라도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 가끔 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고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전 산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지 않아 세간 살림이 온전했으며, 연꽃을 비롯한 작은 들꽃들이 제 모습 그대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옆집 아주머니 덕분이었지요. 하루에 한두 차례 화단에

물주는 것을 잊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일은 다른 데서 터져 마음이 크게 상하였습니다.

지난봄 집 앞 공터에 옥수수와 호박을 심었더랬지요. 그 땅은 영국사 소유로 오랫동안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름이면 잡풀만 무성하였답니다. 한쪽 귀퉁이에 심어진 옥수수와 호박이 자라면서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제법 보기가 좋은 시골 정취를 만끽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영국사 측에서는 그곳에 은행나무를 뽁뽁하게 심었습니다. 다행히 옥수수와 호박은 수로 옆에 심어져 있었기에 무사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집과 길을 사이에 두고 은행나무가 심어지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집 앞에 은행나무를 심느냐?”며 동네사람은 반발하였습니다. 불자이기 전에 공부를 하기 위해 잠시 영국사 뒷방지기로 살림을 살았던 전 쌍육을 또다시 먹어야만 하는 스님이 마냥 불쌍하게만 보였습니다. 지난 가을 악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부임한 영국사 주지는 천태산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천연기념물 223호) 주위에 각목을 박고 차광천으로 돌돌 막아 동네사람은 물론 내방객으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았습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을 주울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동안 천태산 은행나무 은행은 영동 군민은 물론, 타지에서 온 내방객들까지 함께 나누어 가졌지요. 그런데 요 몇 해 영국사만이 그것을 혼자 갖겠다고 하니 오죽하겠어요. 은행으로 얼마만한 돈

을 만지기에 은행나무로 동네를 도배 하나며 핏대를 올리는 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사 주지가 주민들에게 옥을 먹는 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불벌에 꺼져버린 천변 모래밭

애호박, 한철의 인생을
누군가 뜨겁게 달구고 있다
끝없는 고통이 저토록
두루뭉술한 사랑 밖
화염(火焰) 속에서 자라게 하나

제가끔 타들어 가는 생의 길
마치 내 몸속에서 딱딱한
모래가 구르는 것 같다
초원은 아주 먼 곳에 있지만
불의 땅에서도 샘물은 솟는다

천변 모래밭, 물결치듯
해를 삼키고는, 힐끔
나를 한번 쳐다보다
애호박, 모래 둔덕을 지나
화염(華嚴) 속으로 들어선다

- 양문규, 「애호박」 전문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물질만을 숭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불벌더위 속에서 한철의 삶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애호박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끝없는 고통이 저토록, 저 화염(火焰) 속에서 두루뭉술한 사랑을 키우는 것일요. 마치 제 “몸속에서 팍팍한 모래가 구르는 것” 같지만 결국 “화엄(華嚴) 속으로 들어서는 것”이지요. 즉 애호박은 우리들에게 달콤한 식사를 선사한다는 것일요.

잘린 애호박, 누군가의 소박한 양식이 사라졌다는 것에 가슴 아픈 것이 아닙니다. “풀숲의 뜨거운 눈시울/풀벌레도 숨어들어 삶을 이루는 곳/맑은 햇살이 종일 머물다/달덩이 하나 키우는 풍경(양문규, 「애호박」)”을 가슴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호박이 있기까지 호박꽃은 벌과 나비에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갇들어 사는 작은 생명들은 또 어떠하였지요.

지난 여행에서 작지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나 몰라라, 또 글을 쓴답시고 산방에 홀로 박혀 지내 왔으니까요. 누구에게 작은 희망과 기쁨을 선사한다는 것이 큰 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일요.

풀숲의 뜨거운 눈시울, 애호박을 다시 한 번 지그시 바라봅니다. 저 작고 어린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섬기는 마음만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려 봅니다. ㉞

여행으로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 옆집 아주머니에게 고맙다는 말도 전하지 못하고 차에 오를 때였습니다. 배나무집 할머니는 걱정의 눈빛과 말투로 “어디 갔다 왔길래 집을 그렇게 오래 비우는겨, 난리가 났는디, 스님이……” 할머니 말씀인즉 ‘절 땅에 어느 놈이 옥수수 심었냐’ ‘예초기로 깎아내려는 것을 옥수수나 꺾어 먹걸랑 베라’ 는 거였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절 땅이니 그냥 베라고 하지 그랬어요.” 하고 차에서 내려 밭으로 가보니 호박넝쿨과 애호박이 예초기의 날카로운 칼날에 무참하게 베어져 나뒹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 애호박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의 살림에는 과거 아름다운 나눔의 정신이 자리하였지요. 불가의 정신도 그러하지요. 싯다르타가 불도를 이룬 후 맨 처음 주창한 것도 자비였지요. 우리 속담에 콩 한쪽도 서로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 다 여기에서 비롯한 말입니다.





〈이등병이 쓴다〉 1주년 특집

— 그 재미와 감동의 순간들 —

원고장의 편집실

2008년 9월의 어느 날... 월간 「공군」 편집실 회의 테이블에서는 2008년 10월호 공군지 기획을 하고 있었다. 새롭고 재미있는 아이템을 고민하던 중 독자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벤트 코너의 신설 아이템이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던져졌고, 이렇게 〈이등병이 쓴다〉란 코너가 신설되었다. 15비에서 〈이등병이 쓴다〉 1호점을 시작으로 그 후 1년, 2009년 9월호에는 12번째 주인공이 탄생하였다.

갓 들어온 이병의 부모님과 여자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을 안심시켰던 속이 깊은 선임이 있는가 하면은 발을 다쳐 곱스한 이병을 바로 옆에서 도와 준 병장도 있었다. 반면에 이등병이란 어감이 풍기는 이미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재기 발랄한 이병과 같은 이등병이지만 기수 차이로 선후임이 된 주인공들도 있었다. 12쌍의 사연의 주인공들은 각기 사연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의 분위기는 기대 이상으로 밝았고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각지에 공군부대를 방문하여 피자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생활관은 1년을 꼬박 해박야 고작 12곳에 불과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등병이 쓴다〉 1주년을 조용하게 자축하며 전 공군부대 생활관 병사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군 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월간 「공군」 편집실은 언제든지 힘차게 달려 갈 준비가 되어 있다. ㉠

〈이등병이 쓴다〉 1년 동안의 발자취(계급은 취재당시 기준)

| | | |
|----------------|---------------------|-------------------------------|
| 1호점 (제15호비) | 이등병이 쓴다 | 이병 윤지수(665기) ♡♡♡ 상병 양재석(655기) |
| 2호점 (방포교) | 이등병이 쓴다 | 이병 안병규(666기) ♡♡♡ 병장 김성락(648기) |
| 3호점 (제18전비) | 발칙한 이등병의 생활관 습격 사건 | 이병 임승진(666기) ♡♡♡ 제5생활관 선임들 |
| 4호점 (2여단) | 527부대에서 날아온 편지 | 이병 한상수(667기) ♡♡♡ 상병 안재홍(655기) |
| 5호점 (제5전비) | 뛰는 병장 위에 나는 이등병!!! | 이병 김홍락(668기) ♡♡♡ 병장 신명철(653기) |
| 6호점 (제38전대) | 기상대 병사들의 웃음나누기 | 이병 이한영(668기) ♡♡♡ 일병 심재영(666기) |
| 7호점 (30단) | 선임만한 후임 없다. | 이병 이도윤(669기) ♡♡♡ 상병 서인혁(661기) |
| 8호점 (작사) | 내 인생의 한마디! | 이병 광명재(671기) ♡♡♡ 병장 연재덕(650기) |
| 9호점 (제1전비) | 군생활의 첫 단추 | 이병 김택진(673기) ♡♡♡ 일병 이현림(668기) |
| 10호점 (복지단) | 이등병이 이등병에게 | 이병 안 휘(674기) ♡♡♡ 이병 금강산(673기) |
| 11호점 (제10비) | 친구 같은 선임! 친구 같은 후임! | 이병 강동협(674기) ♡♡♡ 일병 가장한(673기) |
| 12호점 (제17비) | 내 생애 최고의 선배에게 | 이병 박수용(676기) ♡♡♡ 상병 임성재(668기) |

오늘은 내가
쓴다!





내 생애 최고의 선배에게

취재 · 원고정의 편집실 사진 중사 이호준 | 17비 사진반

이병 박수용(b7b기)

17비 인사처



상병 임성재(bb8기)

17비 인사처

1주년을 맞이한 <이등병이 쓴다>에 12번째 주인공을 결정하는 선택은 평소보다 시간이 더 필요했다. 평소에 비해 2배 이상 물려든 신청자들로 한 명의 주인공만 선택해야 하는 미안함이 쌓여갔고 1주년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니 뭔가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고민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편집자를 괴롭히는 또 한 사연의 편지가 도착했고, 편지를 읽은 후 모든 고민을 털어버렸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준 17비의 박수용 이병에게 고민 해결의 고마움을 전한다.



필승!!

낯선 환경에서의 시작은 언제나 기대 반 두려움 반인데, 그중에서도 군대에서 처음은 아무래도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군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편지를 받으시는 임성재 일병님이십니다.

임 일병님 덕분에 군대에서 어떤 선임을 만날 것인지는 복복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저는 복(福)을 받은 것 같습니다. 힘든 일과를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할 때면, 언제나 어깨를 다독여주시며 '수고했어' 라고 한마디 해주시는 임 일병님. 그 말 한마디에 그때까지 제 어깨를 짓누르던 피로가 전부 가시는 듯 합니다.

또, 쌓인 업무가 많음에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처음 배우는 후임의 입장을 헤아려 주셔서 제가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으면 어김없이 나타나 아무렇지도 않게 능숙한 솜씨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주시는 모습에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미처 다 배우지 못한 업무를 혼자 처리하려다 크게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도 마냥 혼내시기보다는 '잘하려고 다가 실수한 거 같은데, 네 마음 알고 있으니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며 용기를 주셨을 때는 의기소침해져 있던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잊지 않고 열심히 하여 기대에 부응하는 후임, 훗날 전역해서는 동네의 좋은 동생으로 남겠습니다.

그간 감사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p.s 이 편지를 받으실 때면 아아 생생이실듯 합니다. 생생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from. 이병 박수용

'이등병이 쓴다' 코너에 훈훈한 사연을 신청하시면, 월간 「공군」 취재진이 각 부대를 방문하여 감사하고 싶은 동료에게 간단한 피자파티를 열어드리고 그 사연을 월간 「공군」에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 : tribune44@af.mil(인트라넷), tribune44@gmail.com(인터넷)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의 場 2009 공군항공우주캠프

글 편집실 사진 편보현 | 공군본부 공보과

지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공군사관학교 등에서 '2009 공군항공우주캠프'를 한국항공소년단과 함께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7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이번 캠프에는 공군항공과학고와 경북과학고 학생, 오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 공군 장병의 자녀 8명 등 모두 85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캠프는 '조종사가 되는 길'을 주제로 다양한 실제 훈련 프로그램으로 짜였다.

참가자들은 공군사관학교에서 항공과학기초이론을 배운 뒤 국내 최대 규모의 풍동실험실에서 항공역학을 실험했다. 또 공군박물관과 항공기전시장을 견학하고 사관생도와 조종사가 되는 길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12m 높이에 서 뛰어내리는 모의 낙하산 강하훈련과 수중 구조훈련도 실제로 실시하고 C-130 수송기에 탑승하였다. ①



〈캠프 소감문〉

남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 신준식 | 서울 인창중학교 1학년

처음 공군항공우주캠프의 소식을 접한 것은 지난 5월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09대회 때이다. 그 뒤 잠시 잊고 지내다가 담임선생님을 통해 캠프 소식을 알게 되었다. 캠프를 신청하고 떨어지면 어쩔까 하는 걱정에 잠도 설치며 걱정했는데 다행히 캠프 참가자로 선발되어 정말 기뻐했다. 아버지가 공군사관학교에 보내주시면서 "남자가 되어 돌아오라"고 격려해 주셨다.

첫날 캠프 입소자들은 숙소를 배정받고 입소식을 한 후, 공군사관학교를 견학했다. 그 중, 풍동실험실의 규모는 그야말로 엄청났다. 우리나라에 3군데밖에 없으며, 비행기와 미사일이 날아갈 때 공기의 흐름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설명하셨다.

캠프 둘째 날 비행교육대에서 비행기 3대가 이륙하는 것을 보고, 직접 비행기에 앉아서 조종간도 만져봤다. 복잡한 기계들이 많았는데 이런 걸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대단해 보였다. 이어서 낙하산 강하훈련을 받았다. 하네스와 예비 낙하산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다.

높은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앞에 서니 무섭고 떨렸다. 막상 뛰어내리려하니 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뛰어내리자 기분이 너무 좋았다. 뭔가 큰일을 해낸 것 같았다. 오후에 받은 해상 생활훈련장에서의 구명보트 훈련은 너무도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물속에서 교관 아저씨 눈을 피해 장난도 몰래 치고 수영도 했다. 낙하산 분리훈련에서는 낙하산이 분리되지 않아 아쉬웠다. 실제 상황이었으면 매우 위험했을 것이라고 교관 아저씨께서 말씀하셨다. 아찔한 기분에 소름이 돋았다. 저녁에는 조종사 아저씨와 약 1시간 정도 이야기 하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갔다. 이야기가 끝나고 비행이론 강의



필자



를 듣고, 전투기 모형을 만들어 날렸는데 내 것만 잘 날지 못해 아쉬웠다. 남들에 비해 손재주가 없는 탓이다.

셋째 날은 구조전대훈련을 받았다. 세 그룹으로 나뉘어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조는 암벽등반을 먼저 했다. 안전띠를 묶고 인공암벽을 올랐는데 다리가 짧아서인지 얼마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다. 다음으로 CPR(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았다. 전에도 CPR을 배웠던 터라 이해가 쉬웠다. 이어서 스킨스쿠버 훈련을 했는데 수심 5미터까지 내려가서 이리저리 헤엄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처음 경험해본 스킨스쿠버 체험은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오후에는 17전투비행단의 여러 곳을 견학했는데, 발칸포 모의발사 훈련이 가장 인상 깊었다. 아무리 훈련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실제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군인아저씨들이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했는지 짐작이 갔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았다. 공군사관학교에 다시 돌아와서 생도형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물어볼 것은 많았으나 시간이 너무 짧았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 아쉬웠다. "꿈을 높게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노력하라!"는 생도형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캠프 마지막 날, 조종사가 되기 위한 항공생리훈련을 담당하는 항공우주의료원을 견학하였다. 처음 보는 장비들이 마냥 신기했다. 그 중 중력가속도 훈련은 가장 힘든 과정으로 자기 몸무게의 9배까지 견뎌야 한다고 했다. 멋있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겨내야 할 힘든 훈련이 너무도 많다는 생각을 했다. 오후에는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C-130 체험비행이 있었다. 수송기 탑승은 처음이라 모두들 들떠 있었다. 실내는 좁고 엔진 소음으로 다소 시끄러웠지만 우리만이 특별히 탈 수 있다는 자부심에 조금의 불편함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군항공우주캠프는 내가 참가한 다른 캠프에 비해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되었고 평소 가볼 수 없던 곳에 가서 평소 해볼 수 없던 것을 체험한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 끝으로 더운 날 캠프 운영을 위해 애쓰신 공군 아저씨들과 지도교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ot SKETCH



◎ '09-1차 고등비행수료식

참모총장은 8월 13일 제16전투비행단에서 거행된 '09-1차 고등비행수료식을 주관하고 조종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59명의 신임조종사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비행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신임 조종사들의 목에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직접 매어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훈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는 최일선 조종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군의 유능한 리더로 성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5전비 공군 재조형 현장지도

참모총장은 8월 3일 5전술공수비행단을 방문하여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조종사, 정비·무장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참모총장은 군 재조형과 관련, "군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여 제대로 실행하는 자세를 견지할 때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선진 정예화된 강한 공군'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며, "5전비 전 요원이 '공군 재조형' 과 선진정예 공군 구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 故 한운사 씨 빈소 조문

참모총장은 8월 12일 원로방송작가 故 한운사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였다. 故 한운사 씨는 공군을 상징하는 '빨간 마후라'의 작사가이자 영화시나리오를 작성한 인물로 8월 11일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제1방포여단, 사랑의 헌혈 운동 펼쳐

제1방공포병여단은 8월 10일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 장병 및 군우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헌혈 운동에 참여한 최범구 상병은 "나의 작은 실천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헌혈 운동에 참여할 뿐 아니라, 주위의 전우들에게도 헌혈 운동 동참을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사, 무료 의료지원

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에서는 8월 13일 산청복음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재원 중인 노인들에게 무료 의료지원을 실시하였다. 이 날 대민의료지원에서는 특히 한방과가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평소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건강 상담과 목욕지원 역시 호응을 얻었다.



◎ 군수사 제82창, 매한 윤봉길 의사 기념관 방문

제64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제82항공정비창 병사들이 매한 윤봉길 의사의 사당을 방문하여 윤봉길 의사와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사당 주변 환경정화를 통하여 봉사정신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였다.



◎ 작사, 해군사관학교 65기 생도 방문

해군사관학교 생도 일행이 8월 11일 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부대 현황을 소개받고, 역사기념실 및 항공기 시뮬레이터 등을 견학하며, 공군작전에 대한 이해증진의 기회를 가졌다.

공중 재급유(Refueling)

- 급유기, 요원의 항공전력 능력 및 전략 지원 -

전문 미 공군 (Airman) Magazine

사진 병장 Desiree N. Palacios | 편집장 Matt Bates | 번역 중위 이준호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Godfrey Cabot 중위에게 있어 가장 큰 낙은 구식 복엽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었다. 급유를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는 때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늘에서 보내기를 즐겼다. 지상으로 내려오길 싫어했던 그는 곧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인이 생각한 방안이 성공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었다. 아니, 성공해야만 했다. 그 방안이란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항공기 외부에 갈고리가 달린 밧줄을 매달아 해상 혹은 호수상에 떠 있는 연료 캔을 끌어올림으로써 지상 착륙의 필요 없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상공에 머무르는 것이다.

1918년 어느 날, 이 해군 예비역 조종사는 항공기 뒤편에 매달린 갈고리 밧줄을 지상을 향해 던졌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 지상에 위치해 있는 본인의 "연료 재보급" 고안물을 목표로 비행하였다. 강한 흔들림이 있었고 이를 통해 무언가를 낚아챘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조종석 밖을 내다 본 Cabot 중위는 복엽비행기 옆으로 그가 그토록 원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밧줄 끝에 매달려 있는 그것은 바로 반짝거리는 가스캔이었다. 성공한 것이다! 이를 시초로, 공중 재급유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 미 항공전력의 공중 전력 및 공중 우세 확보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된다.

Cabot 중위의 이러한 아이디어는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실전에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공중 재급유의 가치에 눈 뜨게 하였고 곧 더 오래 상공을 날고자 한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써 이 해군 조종사 청년은 공중 재급유의 선구자로서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오늘날, Cabot 중위는 공중 급유소를 조종하며 매년 수천 대의 항공기에 수백 만 갤런의 가스를 제공하는 조종사 및 관련 운영자들의 집단내에서 공중 재급유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195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KC-135 Stratotanker 및 공군의 최신 급유기인 KC-10 Extender를 포함하는 이러한 공중 급유기는 매일 공군, 자매군, 및 파트너 국가의 항공기에 공대공 급유를 지원한다.

수혜를 받는 항공기는 F-22 Raptor 및 F-15 Eagle과 같은 작고 민첩한 항공기에서부터 G-17 Globemaster 3 및 G-5 Galaxy와 같은 대형 항공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E-3 AWACS 및 E-8 Joint STARS와 같은 대형 지휘통제





항공기 또한 상공에서 오랜 시간 동안의 지속적 임무 조종 및 정찰 능력 유지를 위해 급유기에 의존하고 있다. B-52 Stratofortress와 같은 폭격기는 최대 수용가능 폭탄의 장거리 운송을 위해 재급유를 활용한다. 365일 24시간 동안 이 공중 재급유기는 군 항공기의 오랜 비행시간을 보장하고 지속성, 행동반경, 그리고 수용가능 하중을 늘려줌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고 있다.

중요 임무

지구상 어디서나 미군 전력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항공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 이는 B-52와 같은 장거리 폭격기도 아니고 C-5와 같은 수송기 혹은 F-22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급유기이다.

공중급유기는 합동 항공 전력의 임무를 묵묵히 지원한다.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및 기타 항공기가 지상착륙 없이 급유를 받음으로써 미 전력의 작전 반경을 넓히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공중 재급유 임무는 미군의 전세계적 영향 확대 및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명령 하나로 약 500만 파운드의 연료가 지원됩니다. 공중 급유 능력 없이는 수행될 수 없는 임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



일리노이주 Scott 공군기지의 제126공중재급유단 소속의 KC-135 Stratotanker 운영자인 Brown 중사가 Whiteman 공군기지에서 두 대의 B-2 Spirit의 연료 지원 준비를 하고 있다.

리노이주 Scott 공군기지의 제618급유기 공수통제본부장인 Mark S. Solo 소장이 말한다.

항공계에 몸을 담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에게 있어 공중 재급유는 현대 항공 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들 중 가장 중요하다. “현대의 그 어떠한 기술혁명도 공중 급유기만큼 항공전력의 유연성에 공헌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차대전 시 장거리 임무를 수행했던 前 B-24 Liberator 조종사 Perry Griffith 퇴역 소장이 말한다.

공군 지휘부 또한 공중 재급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급유기가 없는 공군은 포괄적, 세계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급유기는 국가의 전세계적 역할 및 전력 확대의 근간입니다.” 미 공군참모총장 Norton Schwartz 장군이 말한다. “공중 재급유 능력은 미국의 전장 전력 확대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미 공군성 장관인 Michael B. Donely 씨가 말한다.

공군 교리마저 급유기가 지원하는 특수 능력을 명시, 강조할 정도이다. 공군 교리에 따르면, 공중 급유는 ‘적절히 활용될 시, 공중 재급유는 항공 임무의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영향을 향상 및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흥미로운 역사

공대공 재급유가 군으로부터 항상 호의적인 시선만 받은 것은 아니다. 군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채택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과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Cabot 중위는 전환적 발상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었으나 1921년, 곡예 비행가였

던 Wesley May 씨가 5갤런 가스가 들어있는 캔을 본인의 등에 몸소 둘러메어 Lincoln Standard기의 날개에서 Curtis JN-4기의 날개로 이동, JN-4기의 연료 탱크에 가스를 주입하기 전까지는 공대공 재급유가 수행되지 않았다.

군에서는 1923년, 현 공군의 전신인 육군 항공대가 항공기 간 호스를 연결하여 재급유를 수행하기 전까지 공대공 재급유를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듬해, 2명의 항공대 중위(John Richter와 Lowell Smith)가 de Havilland DH-4B를 이용, 남부 캘리포니아 지방을 37시간 동안 3,200마일 이상 공중 재급유를 통한 비행을 성공할 수 있었다. 다른 DH-4B기로부터 15회에 걸쳐 재급유를 받았으며 호스를 통해 약 75갤런의 연료가 공급되었다.

이 2명의 중위들은 캐나다 국경으로부터 멕시코 티후아나까지 12시간 동안 약 1,300마일을 오직 2번의 공중재급유만으로 비행함으로써 공중재급유의 실용성을 또다시 증명하였다. 그러나 다음 달 있었던 불의의 사고로 더 이상의 실험은 진행될 수 없었다.

그로부터 5년 후, 공중 재급유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1929년 1월 1일, Fokker C-2 3발기는 기록 달성을 위한 비행을 시작하게 된다. 두 대의 Douglas C-1 복엽비행기를 급유기로 활용하여, 엔진 고장으로 지상에 착륙하기까지 7일 동안 상공에 머물렀다. 비행 중, 항공요원들은 5,660갤런의 연료 및 245갤런의 기름을 지원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중 재급유의 개발은 지체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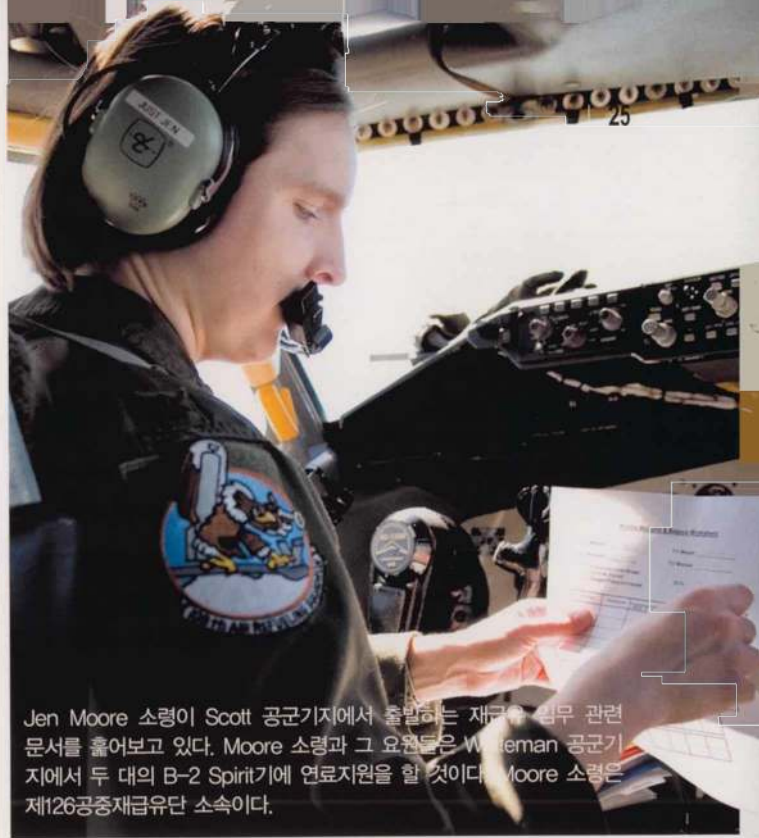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장거리 전략 임무와 공중재급유에 대한 지휘부 내 회의감이 팽배하게 된다.

전쟁 후, 공중재급유는 전략항공사령부로부터 장거리 임무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1949년에 마침내 그 결과를 보게 된다. 특수 제조된 B-50A 폭격기가 최초로 중간 착륙없이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한 것이다. 급유는 KB-29 급유기로 불리우던 개조된 B-29 폭격기로부터 받았다.

숫자로 보는 교육

급유기의 효율성과 공현도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급유기가 수립한 기록들을 펼쳐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항구적 자유작전과 이라크 자유작전을 수행하면서 급유기는 명실공히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였다. 연합항공작전본부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급유기는 약 53,518소터를 통해 121,000대 이상의 항공기에게 30억 파운드 가량의 연료를 지원하였다. 지난 6개월만 놓고 보더라도, KC-10기와 KC-135기는 9,191소터를 통해 94,332,776갤런의 연료를 지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1969년 달 탐사 로켓이 달과 지구를 약 130회 동안 왕복할 수 있는 양이다. 이는 중부사령부의 기록만 반영한 것이며 그 외의 임무 및 훈련 지원을 위해 전 세계를 누빈 나머지 수천 소터들을 제외한 수치다.

베트남에서 이라크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까지, 급유기는 미국이 참전한 모든 전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날 급유기가 지원하는 항공기는 주요 표적에 폭격을 가하는 폭격기, 전방 전개 기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급물을 수송하는 수



Jen Moore 소령이 Scott 공군기지에서 출발하는 재급유 임무 관련 문서를 훑어보고 있다. Moore 소령과 그 요원들은 Western Air Force 공군기지에서 두 대의 B-2 Spirit기에 연료지원을 할 것이다. Moore 소령은 제126공중재급유단 소속이다.

송기 혹은 지상군을 근접지원해 주는 지원기 등이다. 즉, 비행 소터 하나, 급유기가 지원하는 가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국가의 영향력 확대와 공중 우세라는 목표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실전에는 실용적으로 적용되지 못했을 지언정, Cabot 중위의 공중 재급유 시도는 이론상 완벽하였다. 항공기를 상공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여 항공기의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그 이론. 가스캔을 낚아채던 그 순간, Cabot 중위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공중 재급유의 개념이 실행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그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룸으로써 역사책에 그 이름을 새기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최대한 오랫동안 상공에 머무르며 계속 비행하고자 했던 그 꿈을 말이다. ㉞



Jen Moore 소령, Brent Smith 중위 및 Daniel Brown 중사가 비행 전 브리핑에서 그들의 비행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Moore 소령과 Smith 중위는 KC-135 Stratotanker 파일럿이며 Brown 중사는 제126공중재급유단 소속 운영자이다.



Jen Moore 소령과 Brent Smith 중위가 재급유 임무 전, 비행 전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고 있다.



<2009 각 팀별 FA 현황>

| | | |
|--|---|---|
| <p>KT FingerBoom 박지수, 안상원, 박찬수 배병우, 김재훈, 강민</p> | <p>삼성전자 칸 송병구, 허영구, 박성훈 이성은, 주영달</p> | <p>STX SouL 진영수, 김용환, 박성준 김구현, 박종수</p> |
| <p>SK Telecom T1 김택용, 전상욱, 최여성 고인규</p> | <p>MBC게임 HERO 염보성, 이재호, 김동현 고석현, 박지호</p> | <p>화승 OZ 이제동, 구성훈</p> |
| <p>CJ Entus 마재윤, 변형태, 박영민</p> | <p>hite SPARKYZ 김창희, 박영수</p> | <p>eSTRO 신희승, 신상호, 서기수</p> |
| <p>공군 ACE ???</p> | <p>위메이드 폭스 이윤열, 박성균</p> | <p>웅진 Stars 원용태, 김준영</p> |

공군 ACE, 틈새시장을 노림시다

글 대위 유선의 | 방공포병사령부 정훈공보실 사진 제공 Fomos

E-sports 역사 10년 만에

FA, 즉 자유계약선수가 생겼다. 선수의 권리향상과 구단의 전력강화는 물론 팬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팀 전력의 양극화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야구나 축구 같은 타 스포츠에 비해 애들 장난 같은 몸

값의 프로게이머들을 두고 거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스타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더구나 스타판에는 매년 팀에서 키워낸 보석 같은 신예들이 등장해 판을 뒤흔든다. 그 강도가 타 스포츠와 비할 바 아니다. 또한 각 팀들은 유명하고 몸값 비싼 선수를 데려와도 한순간에 스파크(스타



김구현



김택용



도재욱

막장)되는 선수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이러한 학습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FA제도가 스타관에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杞憂)로 그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요컨대 스타관에서의 FA는 (팀 전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하나의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다.

금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FA제도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인 공군에이스가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팀들의 전력 변화는 공군에이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E-sports FA제도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FA 획득 자격이다.

1. 2006년 3월 22일 이전에 프로게이머로 등록되어 있을 것
2. 3년 연속 팀 단위로리그에서 기준횟수(15%) 이상 출전했을 것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자격이지만 2009년 8월 10일자로 FA자격을 충족시킨 선수는 총 39명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 공군에이스 선수들은 자격조건의 2항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FA가 될 수 있지만 현재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FA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선수들을 내준 팀은 선수 연봉의 200% 금액을 지급받거나 선수연봉 100%의 금액과 보호선수 8명을 제외한 다른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

주요 팀들의 FA시장 전망

이러한 FA제도가 공군에이스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비록 사적인 견해에 불과하지만) 몇몇 주요 팀들의 FA시장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FA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가장 활발하게 선수를 영입해왔던 KT는 지금까지 가장 '피를 많이 본' 구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명가(名家)를 자처하며 강민, 박정석, 홍진호 등 스타군단을 보유하고서도 항상 우승권에서는

멀리 있었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지난해 야심차게 영입한 박지수, 박찬수도 천덕꾸러기가 되어 KT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러한 강인한 학습을 경험한 바 있는 KT가 이번 FA시장에도 손을 댈까?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다른 팀에서 아직까지 매력적인 박지수, 박찬수를 데려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액을 주고 영입했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그들을 풀어준다? KT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출혈 없이 새로운 영입을 시도하겠지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KT의 상황으로 보인다.

지난주 신한은행 '08-'09시즌 우승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SKT는 팀의 중심인 도택명(도재욱, 김택용, 정명훈) 중 김택용만이 FA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게다가 김택용 역시 SKT로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팀에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 SKT에서 기나긴 연습생 시절을 거쳐 요즘 빛을 보고 있는 고인규 역시 팀을 떠날 리 만무하다. 전상욱의 이적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를 내준다 해도 SKT로서는 큰 손해가 아닐 것이다. 팽안리에서 이제동을 떡 실신시킨 테러리스트 정명훈에 고인규까지 테란라인에는 사실 남은 자리도 없다. 오히려 전상욱을 내주고 박재혁과 정영철만으로는 (상대적으로) 불안한 저그라인을 보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가장 탐낼 만한 인재는 역시 이제동, 다음은 박명수 정도일 것인데 둘 다 현 소속팀의 핵심 전력이라 쉽게 영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한 화승의 경우 '원투펀치' 없이 '원펀치' 만으로는 우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수 영입이 예상된다. 당연히 팀 전력의 반 이상인 이제동을 내주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동과 오영종이라는 원투펀치가 있을 때 누렸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전 오영종의 포스를 보여주는 선수를 영입해야 할텐데 그런 선수라면 FA시장에 몇몇 있다. 다만 영입이 어려울 뿐이다.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여전히 즉시 전력감인 전상욱을 영입해 구성훈과 강력한 테란라인을 구축할 수도 있고, 강력한 라이벌인 삼성의 송병구나 허영무, 이성은 정도를 노려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지금의 전력만으로는 우승이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화승은 제법 큰 FA영입을 시도할 것이 가장 유력한 팀이다.

최소한의 목표는 달성(플레이오프 진출)했지만 광안리행에 실패한 삼성과 하이트, CJ의 경우 FA로 나온 선수들이 프랜차이즈 스타들이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기량이 확실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화승에 비해 FA선수들만 붙잡는다면 얼마든지 다음 시즌에도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팀들이다. 송병구, 허영무, 이성은 트리오에 차명환까지 보유한 삼성은 물론이고 신상문-김창희라는 SKT에 버금갈 최강의 테란라인에 박명수-문성진 4강 저그라인을 보유한 하이트도 출혈만 없다면 확실한 우승후보다. 다만 CJ의 경우 박영민-진영화 토스라인이 안정감을 있지만 임팩트가 없어 6룡급 토스(윤용태, 김구현 정도)영입을 노려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FA의 바람 속에서

공군에이스는 이주영, 박대만의 전역을 앞두고 새로운 선수 모집 공고를 냈다. 홍진호, 박태민이 들어오기 전까지 혼자서 팀의 저그라인을 떠받치고도 모자라 지난 시즌 전성기 못지 않은 실력을 선보였던 이주영의 전역은 공군에이스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다. 석달 전 민찬기, 김성기를 신병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지원했던 이승훈, 서기수 등 강한 프로토스를 떨어뜨리면서 조금 늦더라도 저그라인을 보강하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찬기와 김성기의 합류가 공군에이스에 큰 힘이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전략의 한동욱, 운영의 서지훈이 버티고 있는 공군 테란라인에 더욱 안정감을 실어줄 것이다. 그러나 이주영, 박대만의 공백을 확실히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백을 메우는 것만으로는 '공군에이스 내년에도 꼴지'라는 말밖에 안 된다. 뭔가 전력 상승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런 때 공군에이스의 입장에서는 FA자격을 갖춘 선수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FA라는 건 말 그대로 '대박 아니

면 쪽박' 일 수 있는 제도다. 선수든 팀이든 '대박'을 내기 위해 욕심을 부릴 수 있지만 자칫 '쪽박'을 칠 수 있는 곳이 FA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력도 좋고 비전도 있는데 본의 아니게 '쪽박'을 차게 된 선수들의 시선이 향할 곳은? 바로 공군에이스다.

혈값에 자존심 버리고 원하지 않는 팀으로 가느니, 어차피 한 번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그들은 의외로 공군에이스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공군에이스가 정식으로 FA시장에 뛰어들지는 못하지만 'FA 실패 선수 환영' 이런 풋말 내걸고 기다리고 있으면, 혹시 아는가? 생각지도 못한 대박이 걸릴지. 이것이 바로 공군에이스가 노려야 할 틈새시장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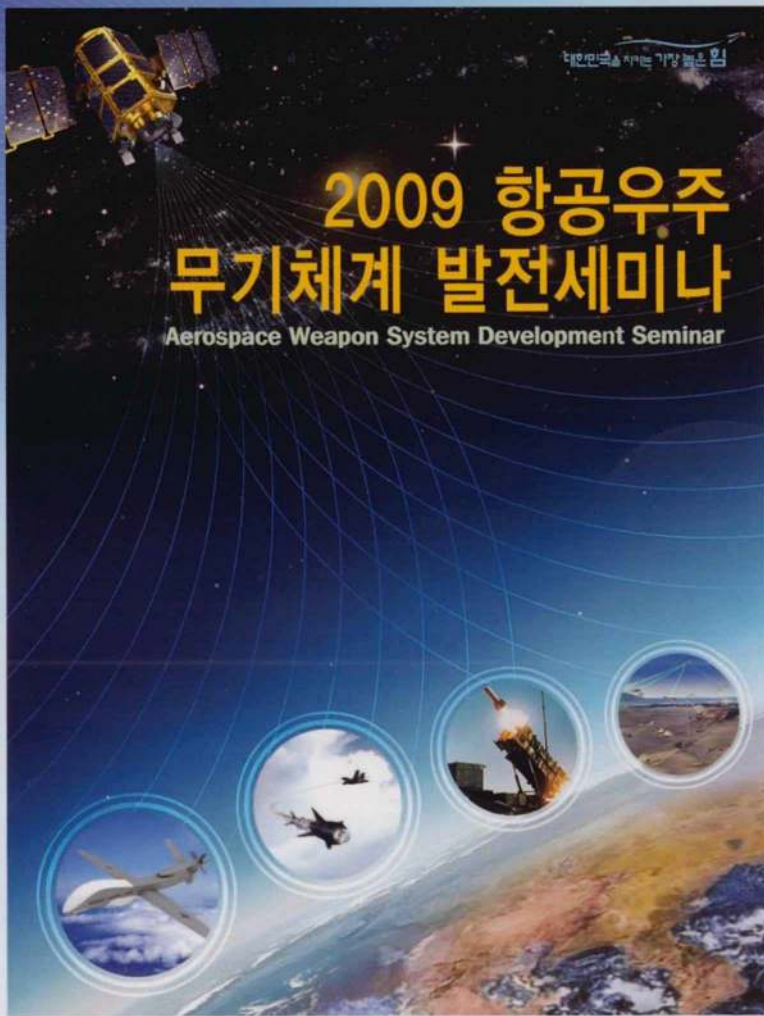
혹자는 이런 필자의 견해를

'자존심도 없는 거지근성'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프로의 세계는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니다. 지난해 육룡(六龍)이라고 이름을 떨쳤던 선수들의 성적을 보자.

김택용 : 39전 28승 11패(71.8%) vs TOSS(10승 3패, 76.9%)
 김구현 : 39전 23승 16패(59.0%) vs TOSS(10승 2패, 83.3%)
 송병구 : 35전 20승 15패(57.1%) vs TOSS(7승 3패, 70.0%)
 도재욱 : 19전 10승 9패(52.6%) vs TERRAN(5승 3패, 62.5%)
 허영무 : 33전 15승 18패(45.5%) vs ZERG(4승 4패, 50.0%)
 윤용태 : 34전 15승 19패(44.1%) vs TERRAN(7승 4패, 64.6%)

김택용을 제외하고는 60%의 승률을 거둔 선수조차 없다. 오히려 허영무와 윤용태는 50% 미만의 승률을 거두고 있다. 그런데도 스타팬에서는 이들을 '육룡'이라며 두려워한다. 그리고 두려워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다. 이런 곳에서 자존심 세우고 선수 영입했다가는 평생 꼴지 못 면한다. 프로게이머 전부가 FA가 된다고 해도, 돈 주고 부족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곳이 공군에이스다. 그런 여건 속에서 좋은 선수 찾기 위해 FA시장에 눈길 좀 돌린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

물론 경기장에서는 당당해야 한다. 만년 꼴지라도 경기장 안에서는 당당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현실을 직시(直視)해야 한다. 프로가 이기기 위해 경기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승리를 준비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❶



논문 발표

- 항공우주무기(무인기, 위성항법, 정밀무장)
- 시뮬레이션(기술시범기, M&S)
- 시험평가(인프라 구축, 인증기술)

참가신청 및 문의

• 참가신청

E-mail) weapon@airforce.mil.kr

작성내용 : 성명, 주소, 근무처/직책

연락처, 관심분야, E-mail

• 대한민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Tel) 042-552-5815

042-828-1302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Tel) 02-761-7127

Fax) 02-761-7116

세미나 개요

일 자 : 2009년 10월 21(수) 09:30 ~ 16:30

- 오전(09:30 ~ 12:00) : 항공우주무기(무인기, 위성항법, 정밀무장)

- 오전(14:00 ~ 16:30) : 시뮬레이션, 시험평가

장 소 : 서울 ADEX 2009 행사장(서울 공항) 세미나룸

주 최 : 대한민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주 제 : 첨단 항공우주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후 원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참 조 : 서울 ADEX 2009 홈페이지(www.seoulairshow.com)



면도와 제모

≡ 상병 정 인 | 32세대 4통제대



장 동건이나 원빈 같은 외모라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면도를 하지 않아도 거칠게 자란 턱 수염이 매우 매력적이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정형돈이나 박휘순 같은 외모의 소유자가 하루라도 면도를 하지 않아 길어버린 턱 수염은 노숙자마냥 지저분해 보일뿐더러 비호감의 상징이 되고 만다.(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것 맞다. Just joke! 하하^^;) 우리 주위에 장동건이나 원빈처럼 생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처럼 특출나게 잘생긴 외모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평범하게 생긴 남자라면 수염이라도 깔끔하게 면도하여 좋은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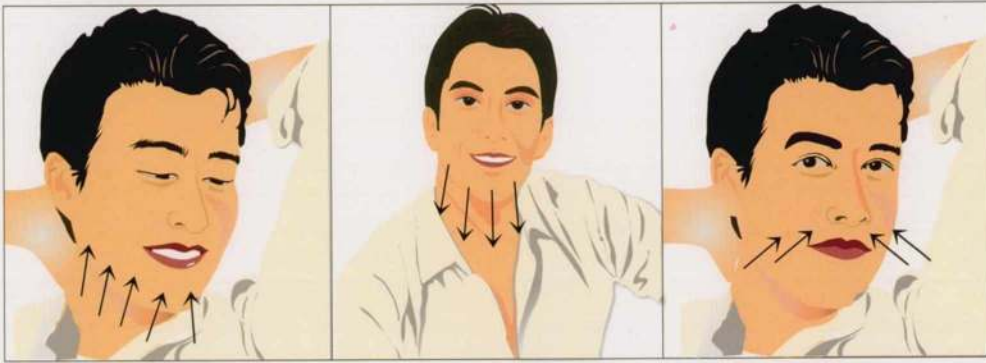
STEP 1! 자기한테 맞는 면도기를 골라라. (따~단♪)

면도기는 크게 습식 면도기와 건식 면도기로 분류된다. 습식 면도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날 면도기로 셰이빙 폼(Shaving Foam)이나 비누 거품을 내어 면도하는 제품이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2중 날이 전부였던 날 면도기의 발전은 현재 6중 날 면도기까지 시판되었을 만큼 빠르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날 면도기의 장점은 피부에 가장 가깝게 밀착하여 수염을 절삭하므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면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면도기의 사용이 서투르거나 여드름이라도 있는 피부라면 금새 턱 주위에서 피가 나버리는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피부를 보호하는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Stratum Corneum)'을 긁어내어 피부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세균 감염으로 인한 모낭염 및 피부염을 유발할 확률도 높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건식 면도기이다.

건식 면도기는 전기면도기를 일컫는 말로 피부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채 건조한 상태에서 면도를 할 수 있는 제품이다. 건식 면도기의 장점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간편하게 면도를 할 수 있고, 각질층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여드름 피부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피부에 완전히 밀착되어 수염을 절삭하는 것이 아니므로 말끔하게 털이 제거되지 않고 가전제품이라는 특성상 고가의 가격대라 부담스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정도면 자기가 어떤 면도기를 선택해야 할지 대충 감이 올 것이다.

STEP 2! 면도하는 순서를 지켜라. (따~단♪)

습식 면도기로 면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부가 면도하기 쉬운 상태가 되도록 워밍업 동작이 필요하다. 면도할 부위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묻혀 피부가 연해지고 모공이 열려 부드러워진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자. 다음으로 셰이빙 폼을 이용하여 거품을 내어 면도 부위에 고르게 발라준다. 반드시 비누거품이 아닌 셰이빙 폼의 거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누 거품은 쿠션 작용을 하는 윤활 성분이 없어 비누 거품으로 면도를 하게 되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기 쉽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면도기를 거꾸로 잡은 채 아래에서 위로 '셰이빙 폼의 거품을 걷어낸다'는 느낌을 가지며 올려준다. 털이 나는 반대 방향으로 면도를 하는 것은 깨끗한 면도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동작을 한두 차례 반복한 뒤 면도기를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어 내고 다른 부위로 옮겨 재차 면도한다. 이때 면도 거품이



[그림-1]

[그림-2]

[그림-3]

사라진 부위에는 날 면도기가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음으로는 [그림-2]에서처럼 면도기를 올바르게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데 이것은 털이 나는 정방향대로 면도해주는 것이다. 털은 피부 부위마다 나는 방향이 제각각이므로 역방향과 정방향으로 모두 쓸어주어야 깨끗하게 면도할 수 있는데 역방향 먼저 해주는 것이 나중에 정방향으로 쓸어주었을 때 절삭되지 못한 수염만을 선택적으로 커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콧수염 부위의 면도는 [그림-3]에서와 같이 윗입술을 입 안쪽으로 당겨 팽팽하게 만든 후 아래에서 위로만 올려주는 단일 동작을 2~3회 정도 반복한 후 면도기를 흐르는 물에 헹구어 낸다. 여기까지 끝이 났다면 면도한 모든 부위를 클렌징 폼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씻어내도록 한다. 습식 면도기를 사용하는 가장 이상적인 때는 샤워할 때이므로 참고하자. 건식 면도기는 특별히 어떤 테크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큰 무리없이 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기본적인 순서만 습식 면도 방식 따라한다면 말끔하게 면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면도기 본체에 너무 힘을 주어 잡고 피부에 밀착시킬 경우 회전날에 의해 피부가 벌게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쥐고 피부에 대도록 하자.

STEP 3! 놀란 피부를 진정시켜라. (따~단!)

습식이든 건식이든 면도 후에는 피부가 자극을 받아 민감해진 상태가 된다. 특히 습식 면도기를 사용했을 때 피부 민감도가 극에 달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때는 차가운 물로 면도 부위에 10회 이상 패딩하여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센스를 발휘할 것! 특히 면도 후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애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에는 다량의 알코올과 멘톨, 페퍼민트류, 향료 등의 함유량이 높아 면도보다 피부를 더 심하게 자극한다. 반드시 애프터셰이브 제품들에는 이러한 성분보다 항염증 성분, 진정 성분, 가벼운 보습 성분들의 함유량이

높아야 놀란 피부를 진정시켜 줄 수 있다.

'애프터셰이브' 제품에는 이런 성분들이 2~3개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좋아요~

비타민 C(아스코르빅 에씨드), 비타민 E(토코페릴 아세테이트, 토코페롤), 카테킨(녹차), 예바마테 추출물, 율로우허브 추출물, 큐컴버(오이), 글리세린,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무코폴리 사카라이드, 히아루론산, 아세틸 살리실산, 히아루론산 나트륨, 세라마이드, 셀레늄, 알로에, 감초 추출물, 소듐 PCA, 니아신아마이드, 알라토인, 비자볼롤, 카모마일, 아줄렌 등 기타 항염증 성분 및 진정 성분, 가벼운 보습 성분으로 입증된 보편적인 성분들.

보너스~ 여성의 제모!

여성에게 있어서 '털'이란 가리고, 밀고, 뽑고, 없애버려야 하는 미운털 콕콕 박힌 존재이다. 게다가 더운 여름, 바다나 제곡으로 물놀이라도 가기 위해서는 비키니 라인에 거지적 거리는 모든 털을 제모해야만 즐겁게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 남성보다 제모할 수 있는 방법과 제품이 다양한데, 특히 주의해야 하는 제모 제품 중의 하나가 바로 '제모 크림'이다. 제모 크림은 '설파이드(Sulfide)' 나 '글리콜레이트(Glycolate)' 같은 화학 성분이 털의 주성분인 '케라틴(Keratin)'을 녹여내는 원리로 만들어진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성분들이 털에만 영향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도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친다는데 있다. 피부에 제모 크림이 장시간 방치될 경우 피부가 벗겨지거나 쓰러림, 붉어짐, 심할 경우 피가 나거나 피부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적정 사용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모 크림으로 제모를 하고 난 뒤에는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수영장, 사우나 같은 곳에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Tip! 수영장에 가기 2~3일 전에 제모를 하는 것이 좋아요)☺

클래식 음악가, 이 사람만은 기억하자 ③

데니스 브레인

▣ 정홍래 | KBS FM 「박종훈의 가정음악」 방송작가

스 포츠가 하면 떠오르는 붉은색 '페라리', 조그마하지만 상당한 위력을 지닌 '에르메스' 핸드백, 그리고 시계의 명품 '로렌손'... 오늘 명품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품을 명품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명불허전'이라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바로 명품의 매력일 겁니다.

클래식 연주자를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관악기 연주자 가운데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기의 음악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관악기 연주자에 대해서는 편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악기는 힘 센 남성들의 전유물로 생각되곤 했죠. 하지만 요즘 그런 인식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관악기 연주자 가운데에도 여성 연주자가 있고 남성 연주자들도 날렵한 몸매를 지닌 것을 보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평가는 유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영국의 호른 주자를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데니스 브레인(Dennis Brain, 1921~57)'이라고 하는 호른 주자는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적인 연주자입니다. '호른'은 아주 부드럽고 깊은 울림을 지닌 악기입니다. 하지만 연주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져 뛰어난 호른 주자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죠. 지금 소개드릴 '브레인'은 사람들의 오랜 기대 속에서 등장한 연주자입니다.

보통 뛰어난 음악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3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제1세대인 할아버지 세대에는 부를 축적하고 예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세대인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환경 속에서 예술을 배우죠. 그리고 제3세대에 이르러 예술을 향한 집안의 노력은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쌓아놓은 기틀 속에서, 아버지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예술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의 100년에 가까운 3대의 노력 끝에 드디어 한 명의 천재적인 예술가가 탄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브레인'은 이 조건을 갖추고도 남았죠. 그의 할아버지는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호른 주자로 손꼽혔고,

그의 아버지 역시 영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호른 주자였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도 작곡을 했고, 경제적인 입지도 탄탄했으니, 그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음악성을 계발할 수 있었죠. 그가 명품 연주자가 되기까지 본인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 이처럼 3대의 노력의 결과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재적인 음악가는 안타깝게도 '서른여섯'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천재들은 일찍 세상을 떠난다고 하지만, 그는 보통 사람들의 반박에 살지 못한 절반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는 자동차를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연습할 때 그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던 것도 악보가 아니라 최신 '자동차 잡지'였다고 하죠. 자동차를 좋아하는 속도광이었던 '브레인'은 연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합니다. 그의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죠. 그는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스포츠카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연주자는 독일에서 태어난 여성 클라리넷 연주자 '자비네 마이어(Sabine Meyer, 1959~)'입니다. 올해로 신 번째 생일을 맞이한 '마이어'는 종종 우리나라를 찾아와 연주하곤 하는데, 현재 클라리넷 연주자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명품 연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1982년, 그녀의 나이 스물세 살 때, 마이어는 세계 최고의 연주단체인 베를린 필하모닉의 단원으로 선발됩니다. 그것은 아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것이었습니다. 좋은 단원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커튼을 치고 심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디션 보는 사람에게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단지 음악만 듣고 단원을 선발하는 방법이죠. 그녀는 것처럼 공정한 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연습을 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으면 동료 음악가들이 그녀 옆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껴야 했죠. 그것은 '마이어'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지휘를 맡고 있었던 명지휘자 '카라얀'은 '마이어'가 남아 있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료 음악가들은 73:4라는 투표결과로 마이어를 제명시켜 버렸죠. 베를린 필 최초의 여성단원이었던 '마이어'는 그와 같은 차별을 경험하고 9개월 만에 오케스트라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비네 마이어



하인츠 홀리거

그런 시련이 그녀를 더욱 성장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마이어'는 이후로 솔로 연주자로 활동을 했죠.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비며 연주를 다녔습니다. 그녀에게 그러한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화려한 삶을 살 수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연주자 한 명을 더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종종 '클라리넷'과 비교되곤 하는 오보에 연주자 '하인츠 홀리거(Heinz Holliger, 1939~)'입니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연주되던 가브리엘 오보에를 기억하시죠. 푸른 하늘과 초록빛 언덕에 퍼지던 구슬픈 오보에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때 오보에는 교회에서 연주될 수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선율이 너무나 구슬프고 매력적이어서 교회에 온 신도들은 그 소리만 들으려 했죠. 화가 난 사제는 아예 오보에의 반입 자체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 정도로 매력적인 악기가 바로 오보에죠.

그런데 오보에를 위한 음악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오보에'도 영화음악으로 작곡되었던 거였죠. 올해 칠순 생일을 맞은 '홀리거'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연주자입니다. 일찍이 오보에 연주자로 인정받았던 그는 새로운 연주곡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몇백 년 전의 악보를 뒤지기도 하고, 자신이 작곡을 배우기도 했죠. 또 많은 작곡가 친구들에게 새로운 음악을 헌정받았습니다. 그가 우리와 인연이 많은 것도 우리나라가 낳은 작곡가 윤이상과 절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명의 관악 연주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 명 가운데 '브레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후시 '마이어'와 '홀리거' 두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 한 번쯤 음악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명품 연주'를 감상하는 것만큼 값진 일도 없기 때문이죠. 마치 명품 자동차를 시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

나를 다스리는 목적한 침묵

/ 헨리 데이빗 소로우

▣ 중령 강성구 | 재경공보실장

국방부 브리핑실 뒤에 서서 일일 언론브리핑을 청취하는 것은 재경공군공보실장인 제게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중요한 일과입니다. 거의 매일 아침 이루어지는 언론브리핑은 30여 명의 국방부 출입기자를 비롯한 내외신 기자들이 국방관련 뉴스를 취재하는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언론의 보도방향이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예민한 사안이 주제가 되면 국방부 대변인과 기자들의 질의 응답은(단지 그들이 창과 방패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마치 무림 고수들의 현란한 무공을 보는 듯 그 나아감과 물러섬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물론 공군관련 사안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공본 정훈공보실장을 비롯한 공군 공보팀들이 방패를 부여잡고 언론의 예리한 창 앞에 선 적도 있었지요. 낮도 밤도 없는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경험하며 '말(言語)의 전쟁터' 한가운데 제가 서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공보업무를 하며 많은 것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만 '말과 논리'는 결코 진리와 진실에 딱 떨어지게 다다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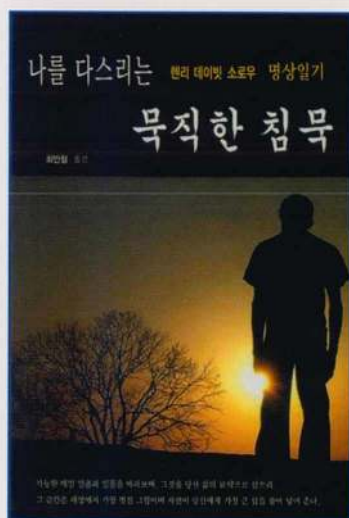
A라는 사실을 열심히 설명하다보면 그것이 B로 변형되어 표현되고 이를 듣는 이들은 C로 듣습니다. 또 질문을 하다 보면 이것이 D로 변형되고 듣는 이는 이것을 E로 이해하고 답변은 F로 나가면서 질문자는 결국 이것을 G로 받아들입니다. 간혹 제3자에게 알릴 때(언론보도)는 H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A라는 실체가 H까지 변형된 것이지요. 또한 동일한 사안도 어떤 변호사가 변론을 말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듯 정교한 논리를 구사하는 능력을 가진 측(그것이 당국자이든 기자이든)의 관점이 진실을 넘어서 여론을 장악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말과 논리의 속성을 조금 과장되게 묘사하기는 했지만 '말의 전쟁터'에서 보낸 몇

달간 제가 느낀 솔직한 소회입니다.

불가나 도가에서는 언어에 기반한 사고체계로는 깨달음을 구하거나 전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말과 글만으로 완벽히 묘사되고 이해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나를 다스리는 목적한 침묵」은 침묵할 때에만 열려지는 감수성의 창(窓)으로만이 진리와 지혜를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준 미국의 사상이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명상일기 모음입니다.

소로우는 1840년대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지만 28세 이후 평생을 메사추세츠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홀로 지내며 자연과의 교감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호숫가에서 목욕을 하고 4시간의 산책을 한 후, 꼭 필요한 만큼의 일만을 하였다고 합니다. 인근의 농부들이 더 큰 농지를 갖기 위해 빚을 얻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하다가 결국 빚에 쪼들린 채 삶을 마감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바쁘고 시끌벅적하게 살아야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로우의 모습은 괴상한 은둔자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다보면 고독과 침묵의 대가로 무한히 열린 감수성을 체득하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물론 길가의 돌들에게서조차 우주의 메시지를 읽어내며 세상을 놀이터처럼 즐겼던 소로우야말로 '사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로우처럼은 못살겠지만 소나무 가득한 어느 깊은 산중에서 매일매일 일출과 일몰을 바라보며 침묵이 전해주는 조용한 기쁨 속에 딱 한 달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기는 국방부 언론브리핑룸이군요.....



PREVIEW

객원기자 이예진

오리지널을 위해 13년을 기다렸다!
최초 내한공연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월드투어, 그 첫 공연이 한국에서 열린다. 주인공 지킬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 팬텀 역으로 최장기 공연했으며, 브로드웨이 역대 지킬 중 최고의 역량을 선 보였다. 세계 최고의 뮤지컬 배우 '브래드 리틀'이 맡았다. 이번 공연은 작품이 성공할 수록 오리지널 공연에 대해 갈증을 느낀 관객들에게 반가운 공연이 아닐 수 없다. 1885년 런던,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인 지킬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인간의 정신을 분리하는 임상실험을 준비한다. 그러나 이사회와 전원 반대로 임상실험이 무산되자, 변호사 친구인 에터슨이 그를 한 클럽으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지킬은 그 곳에서 학대당하는 루시를 보고 그의 명함을 건넨다. 한편 실험대상을 구하지 못한 지킬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어느 날 루시에게 심하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하이드라는 사실을 알고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러나 루시는 그녀를 친절히 치료하는 지킬을 사랑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플라잉 기술'이 새롭게 도입된다. 세종문화회관의 큰 무대를 심분 활용한 이번 기술은 침대 위에 덩그러니 앉은 루시가 다가올 미래를 예상치 못한 채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독백하며 공중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이번 공연의 백미로 꼽힌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13년 만에 찾아온 진짜 지킬 앤 하이드의 이중성을 즐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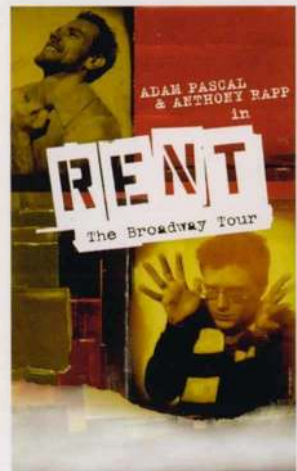
기간 : 9월 20일까지
장소 :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가격 : VIP 13(14)만, R 11(12)만, S 88,000(99,000)원, A 66,000원, B 22,000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금, 토, 일요일 낮 공연
홈페이지 : www.musicaljekyllhyde.com

오리지널 배우들의 마지막 고별 무대
폭발하는 에너지 뮤지컬 <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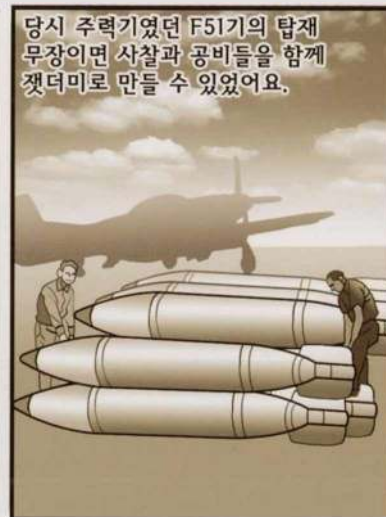
뮤지컬 <렌트>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현대화한 작품으로,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 모여 사는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의 꿈과 열정, 사랑의 갈등과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을 그렸다. 기존의 한국 공연이 뉴욕 문화를 표현하는 데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게 했다면, 이번 공연은 1996년 처음 공연한 오리지널 배우들이 직접 공연함에 따라 뉴욕의 폭발하는 에너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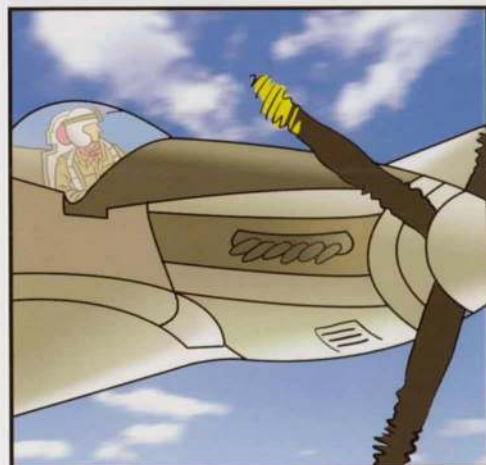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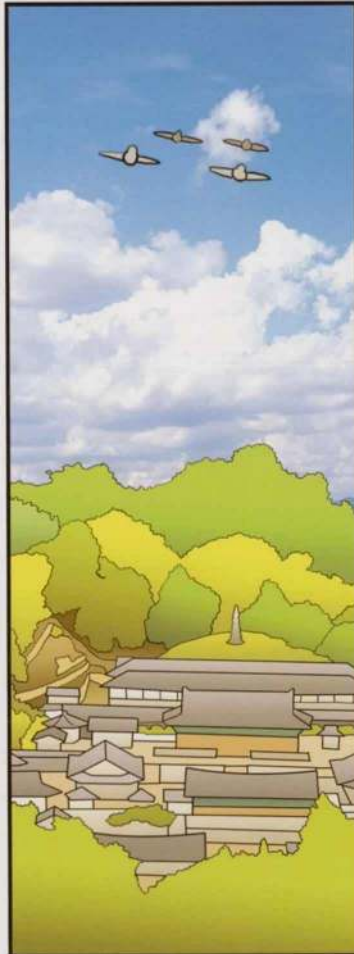
<렌트>는 극본, 작곡을 맡고 작품의 첫 구상을 시작했던 조나단 라슨의 진짜 사는 이야기를 공연 속에 그려냈다. 그는 브로드웨이 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예술작품을 위해 안정된 삶을 버리고 뉴욕의 이스트 빌리지에서 낮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 <렌트>에 나오는 다양한 캐릭터를 닮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동시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갔다. 공연 중에 나오는 에이즈 환자 고든, 알리, 팸, 수는 조나단의 진짜 친구들로 모두 에이즈로 사망했다. 이번 공연의 주인공들은 모두 조나단 라슨과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이어서 오리지널의 의미가 더욱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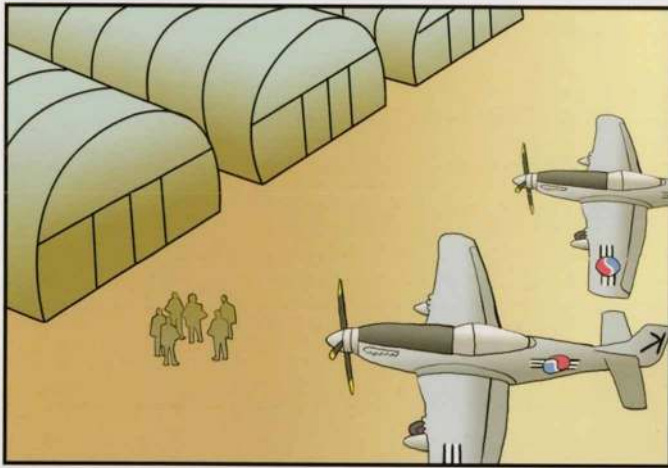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렌트 마니아를 위해 마련된 '렌트식'이 준비돼 있어 눈길을 끈다. 오케스트라 피트석을 단장한 렌트식은 주인공들의 열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석이다. 록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무대, 돈과 명예보다 꿈과 사랑을 쫓는 당신이라면 뮤지컬을 볼 권리는 이미 갖췄다.



기간 : 9월 8일 ~ 20일
장소 : 서울 KBS홀
가격 : VIP 18(20)만, R 12(13)만, S 8(9)만, A 6(7)만, B 4만, 렌트식 10만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금요일 8시, 토요일 3/8시, 일요일 7시 공연
홈페이지 : www.rent-broadway.co.kr









9월의

공군역사

자료제공 역사기록관리단 권고정의 편집실

국산 전투기 제공호(KF-5E/F) 제1호기 출고식(1982년 9월 9일)

1978년 1월 연두 기자회견 석상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전자 병기와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 능력을 키워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1978년 8월 26일에 열린 제1차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에서 항공기 생산 계획을 연내에 앞당겨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79년 7월 1일 대상기종을 노드롭사의 F-5E/F로 결정한 정부는 1980년 10월에 미국과 “F-5E/F 항공기 공동생산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주관 사업자로 대한항공을 선정하였다. 면허생산 형태로 진행된 국산 전투기 제작 사업은 대한항공이 기체생산 및 조립을, 삼성정밀(현 삼성테크윈)이 엔진생산을 각각 담당하였으며, 총 7년의 사업기간(1980년~1986년) 동안 23%의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82년 9월 9일 국산 전투기의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KF-5E/F 1호기 출하행사가 대한항공 김해공장에서 성대하게 실시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대만에 이어 3번째의 전투기 생산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은 KF-5E/F 1호기를 하늘을 제패하라는 뜻으로 제공호라 명명하였다.



1982년 9월 9일, 우리 손으로 제작한 최초의 국산전투기 KF-5E/F 1호기의 출하행사가 대한항공 김해공장에서 성대히 열렸다.

S-2A 해상초계기 도입(1970년 9월 15일)



1970년 9월 15일 김포기지에서 S-2A 해상초계기 인수식이 거행되었다. 동체에 선명히 새겨져 있는 R.O.K AIR FORCE의 표지가 이채롭다.

일명 바다의 추적자라 불리는 S-2A 트래커(Tracker) 항공기는 우리 군이 최초로 운용한 해상초계기로서 P-3C 오라이언을 도입함에 따라 해군이 2001년까지 일선에서 퇴역시켰으나 원적지는 공군이였다. 우리 공군은 1970년 9월 15일 김포기지에서 S-2A 해상초계기 3대를 군원으로 인수하여 제5공수비행단(현 제5전술공수비행단) 예하 제9해상초계비행대에 배치하였으며, 1971년 12월 1일 5대를 추가로 도입함에 따라 총 8대를 운용하게 되면서 제59해상초계비행대대로 증편하였다.



미국의 Grumman社에서 제작한 S-2A 해상초계기는 조종사, 부조종사, 항법사, 조작성 등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며 어뢰, 폭뢰, 로켓탄 등 다양한 공격무기와 함께 소노부이를 탑재하여 잠수함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술항공기로서 이를 우리 공군이 운용하게 된 이유는 도입 당시까지만 해도 해군에 항공기반이 전무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해군은 1972년부터 조종사 및 정비요원을 5공수비행단에 파견하여 합동근무를 실시케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항공기의 운용능력과 정비기반을 획득함에 따라 1976년 1월 S-2A 해상초계기의 호적은 해군으로 이전되었다.

L-4 연락기 서울상공 시위비행(1948년 9월 15일)



서울상공을 시위비행 중인 L-4 연락기들

1948년 5월 5일 통위부(국방부) 직할로 태동한 항공부대는 동년 7월 27일 항공기지부대로 개칭하였으나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변변한 항공기 한 대 없는 형편이었다. 9월 13일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L-4 연락기는 우리 기술진에 의해 조립을 완료하였고, 단 한 번의 시승만으로 우리 조종사들은 L-4 연락기 10대로 동시 이·착륙과 편대비행에 성공함으로써 미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다. L-4 연락기를 인수한 지 불과 이틀 후인 9월 15일에는 태극표지가 선명한 L-4기 10대가 편대군을 이루어 한국 역

사상 처음으로 서울상공에서 시위비행을 실시하였는데, 최용덕 장군은 이날의 감격을 다음과 술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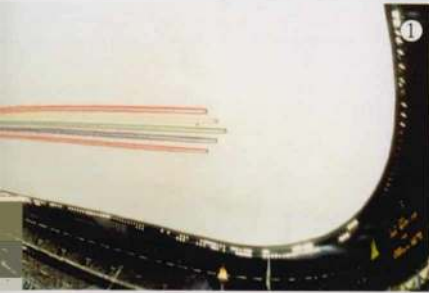
“내가 어려서 망명하여, 남의 나라 군문에서 몽매에도 잊지 못한 소원이 있었다. 그것은 내 나라의 군복을 입고, 내 나라의 상관에게 경례를 하며, 내 나라 부하에게 경례를 받아 보는 것이고, 내 나라 강토 안에서 태극기를 그린 비행기로 조국의 하늘을 마음껏 날았으면 하던 염원을 오늘 성취하고 보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T-59 훈련기 도입(1992년 9월 18일)

영국의 BAE社에서 제작한 다목적 고등훈련기인 Hawk(Mk 67모델)는 유사시 사이드와인더, 2.75인치 로켓 POD, 30mm 기관포 등의 무장 장착이 가능하며 공격기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동성과 우수한 기체성능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베스트셀러로 평가받아 온 기종으로 우리 공군은 1992년 9월 18일 도입하여 T-59로 명명하였다. 이는 59의 한글 발음인 오구가 원 명칭인 호크(Hawk)의 발음과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㉑



편대를 이루어 비행 중인 T-59 훈련기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8

자료제공 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리 편집실



● RF-86 항공기

초창기 우리 공군은 각종 작전에 필수적인 정보지원을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함에 따라 독자적인 작전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자주적인 정보수집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어 1958년 4월 13일, RF-86 정찰기 10대를 미국의 군원(군사원조)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RF-86 정찰기는 6·25 전쟁 중 “씩씩이”로 불리며 한반도 하늘을 주름잡던 F-86 전투기에 정찰장비를 장착한 것으로 비록 성능에 제약은 있으나 RF-86의 도입으로 우리 공군의 정보수집능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RF-86 정찰기는 총 12대를 도입하여 10전투비행단 32전술정찰비행대대에 배속·운용하였으며, 한국공군 최초의 정찰기라는 자랑스러운 수식어를 남기며 1984년 12월 명예롭게 퇴역하였다.



● A-37B 항공기

A-37B 항공기는 Cessna사의 T-37 항공기를 폭동진압 및 대계릴라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조종석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Side By Side)로 분리되어 있으며 7.62mm 기총 1문, 2.75인치 로켓 152발, 폭탄 5,400LBS, AAM 4발 등의 다양한 무장적재능력을 갖춘 다목적 항공기로서 월남전을 거치면서 실전적인 작전능력을 검증받았다. 우리 공군은 1975년 8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월남 패망에 따른 철수 항공기 중 27대를 구매한다는 합의에 따라 1976년 10월 6일에 1차분 8대, 동년 12월에 19대를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우리 공군은 A-37B 항공기를 제3훈련비행단에 배치하여 중등비행교육과정에 활용하였으나 1982년 5월 브라질 공군에서 42대의 T-37 훈련기를 도입함에 따라 전술작전 임무로 전환하여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및 대간첩작전, AN-2 침투저지 등의 임무에 활용하였다. A-37B 항공기는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오륜을 수놓기도 했으며 1995년부터는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의 주력기종으로서 맹활약을 펼쳐오기도 하였으나 RF-5A와 A-37B 항공기 도태계획을 확정된 "정비·군수발전 계획"에 따라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 U-10B 항공기

Helio社의 U-10A를 Base로 하여 개발한 U-10B 항공기는 기본임무 부호인 Utility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다용도로 사용가능한 전천후 항공기로서 "Super Courier"(최고의 스파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월남전을 통하여 대간첩작전, 심리전, 게릴라전 등 비정규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였다. 우리 공군은 U-10B 항공기를 대간첩장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1969년 11월 27일 군원으로 도입하였으며 총 12대를 들여와 VIP공수, 연락업무, 글라이더 견인 등의 임무에 사용하였고 1972년 8월에 퇴역시켰다. ㉞

| 최대속도 | 승무원 | 항속거리 | 승객 | 순항속도 | 화물적재 | 전투행동 반경 | 추력 |
|--------|-----|--------|----|--------|----------|---------|-------|
| 164KTS | 2명 | 590N/M | 6명 | 135KTS | 1,500LBS | 200N/M | 295hp |

A-37B

- ① 1988년 9월 17일에 개막하는 88 서울올림픽 행사 리허설(8월 24일)에서 공군 A-37 항공기 편대가 올림픽 경기장 상공을 지나며 축하비행을 하고 있다.
- ② 세계 항공 축제인 '96 서울 AIR SHOW(1996년 10월 21일~27일)에서 한국의 A-37 항공기
- ③ 8전투비행단에서 운용해 왔던 A-37B 항공기
- ④ ⑤

RF-86

- ⑥ ⑦ ⑧

U-10

- ⑨ ⑩ ⑪ ⑫ ⑬





꿈의 낙원을 향해 날다

이미도

작가, 외화번역가

〈이미도의 영어 상영관〉

〈나의 영어는 영화관에서 시작됐다〉 지음

<http://blog.naver.com/midomiho>

Up to Heaven

2005년 12월 23일, 어린 소녀 콜비는 암 진단을 받습니다. 콜비가 열 살이 된 2009년 4월 28일 콜비의 부모는 〈몬스터 vs. 에이리언 Monsters vs. Aliens〉를 보여주려고 딸을 극장에 데려갑니다. 콜비는 한 편의 예고편을 보곤 탄성을 지릅니다. “난 저 영화 꼭 봐야 해. 최고야, 최고. I have to see that

movie. It is so cool.” 이를 뒤 콜비의 병세는

더 나빠집니다. 같은 해 6월 4일 콜비의 어머니 리사는 호스피스 회사에 휠체어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딸이 환호한 영화

가 개봉하였기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말이 지나가도록 휠체어

는 도착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콜비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집을 떠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가족은 혹시라도 딸이 영화를 못 보고 죽을까봐 큰 걱정에 빠집니다.

콜비의 가족과 가까운 이웃 친구 테렐은 콜비의 마지막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기에 영화를 만든 회사에 전화를 넣습니다. 콜비의 딱한 사연을 들은 임원은 직원에게 DVD를 챙겨서 콜비의 집에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머니 리사가 딸에게 묻습니다. “영화를 볼 수 있겠니? Do you think you can hang on?” 그러자 콜비가 대답합니다. “난 떠날 준비가 됐어. 그래도 영화는 기다릴 테야. I'm ready, but I'm going to wait for the movie.”

6월 10일 영화사는 영화가 종영될 때까지 DVD를 만들지 않는 규칙을 깨고 직원에게 DVD를 챙겨 보냅니다. 영화사 직원이 들고 간 가방에는 영화에 등장하는 동물 캐릭터들의 토이와 영화 포스터도 들어있습니다. 드디어 영화 상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콜비는 화면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으면 눈이 아프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리사는 딸에게 장면 하나하나를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영화가 끝난 뒤 리사는 영화가 재미있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콜비가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영화사 직원의 두 눈에도 눈물이 가득 차오릅니다. 다음은 리사의 술회입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우리 딸은 천국에 오를 거예요. Colby is going to go up. Up to



heaven.” 일곱 시간 뒤 콜비는 부모 곁에서 영원히 눈을 감습니다.

픽사의 열 번째 작품 <UP>


콜비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업 UP>입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장면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PIXAR Animation Studio)가 만든 영화이지요. <업>은 픽사의 열 번째 장면 3D 애니메이션입니다. 흥미로운 건 픽사가 만든 첫 장면 영화인 <토이 스토리 Toy Story>와 이 영화의 메시지가 서로 밀접하게 닿아있다는 점입니다. <토이 스토리>에는 이런 명대사가 나오지요. 우주비행사 토이 ‘버즈 라이트이어’가 즐겨하는 대사이자 픽사의 슬로건이기도 하지요. “To infinity and beyond~! 무한의 세계를 뛰어넘어 비상(飛翔~!)” <업>의 원제목 ‘UP’은 명사일 때 상승을 의미하므로 두 메시지는 연관성이 깊지요.

꿈의 낙원을 향해 비상~!

칼 프레드릭슨과 그의 아내 엘리의 평생의 꿈은 베네수엘라에 있는 파라다이스 폭포(Paradise Falls)를 탐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폭포는 베네수엘라에 실제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980m)는 ‘엔젤 폭포(Angel Falls)’를 모델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 도전해보기도 전 엘리는 저 세상으로 떠납니다. 아내를 잃고 노년을 외롭게 살아가는 칼에게 뜻하지 않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칼의 집 인근에 빌딩 숲이 들어서기로 된 것인데, 집을 팔지 않고 버티던 칼은 양로원에 들어가야 할 처지가 됩니다. 그러자 칼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수를 짜냅니다. 1만 개가 넘는 풍선을 집에 매달아 통째로 하늘로 솟구친 것이지요. 죽기 전에 꼭 파라

다이스 폭포를 탐험하기로 결심하였거든요. 평화롭게 하늘을 날던 칼은 낫선 인기척에 깜짝 놀랍니다. 이웃 꼬마 러셀이 놀러왔다가 얼떨결에 동승하게 된 것이지요. 둘은 이제 불편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둘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이 과정에서 칼은 한 가지 소중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Home is where your heart is. 즉, 집이란 그곳이 어디에 존재하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진정한 의미의 집이라는 것을! 이제 칼과 러셀은 서로에게 집이 되고, 가정이 되어줍니다.

황새가 물고 온 구름 조각과 아기

픽사는 모든 장면 애니메이션 앞에 단편 애니메이션을 붙여 상영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업>은 영화 시작 전 <구름 조금 Partly Cloudy>을 소개하였지요. 이 단편영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감독한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이름은 피터 손(Peter Sohn)입니다. 황새가 아기를 물어다 준다는 이야기에서 착안, 피터 손은 황새가 구름을 떼어다가 선물하면 그게 아기로도 되고, 애완동물로도 된다는 설정을 작품에 담았지요. <업>에서 칼과 엘리가 신혼시절 초원에 누워 하늘을 우러러볼 때 곳곳에 구름이 떠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황새가 구름을 떼어내 아기를 가져다주길 소망하는 설정인데요, 안타깝게도 칼의 아내 엘리는 영영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칼은 ‘나 홀로’ 모험여행에 끼어든 꼬마 러셀과는 처음에는 앙숙 같은 사이가 되지만 대단원에 이르러 칼이 러셀을 친손자처럼, 러셀이 칼을 친할아버지처럼 받아들이는 장면은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따뜻한 설정이지요. 참고로 러셀의 얼굴은 피터 손의 얼굴을 모델로 탄생된 것입니다. 



찌르레기 생각

글 · 사진 준위 현동선 | 제20전투비행단 조류담당



등지 근처에서 경계를 하는 어미 찌르레기

전투기와의 충돌

저는 매년 봄이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올해도 이곳이 좋아서 친구들과 함께 제가 태어난 고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오면 아름다운 산과 넓은 들이 많아서 우리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에 적합하답니다. 먹이도 많고 늘 맑은 물과 흐르는 개울이 도처에 있어서 쾌적한 조건 속에서 새끼들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머리 위를 지나가는 덩치가 크고 속도가 빠른 전투기만 없다면 최고의 낙원이지요.

2003년 5월에 제 친구가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구하러 이동하던 중 전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그 때 그 주변에서 함께 날아가고 있었는데 전투기가 워낙 빠른 속도로 다가왔기 때문에 친구는 항공기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내 친구는 몸체가 으스러지면서 나가떨어졌고 친구와 충돌한 전투기는 비행장으로 귀환하는 도중 문제가 발생했던 서로에게 가슴 아픈 불행한 사건이 생겼답니다.

우리는 가끔 속도가 빠른 비행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전투기의 엔진 소리가 들려서 머리를 들어 올리면 저 멀리 지나간 비행기의 꼬리만 보입니다. 전투기의 성능은 날로 발전하여 속도가 빨라지는데 우리는 다가오는 항공기의 소리를 미리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비행장 근처를 날아다닐 때 늘 가슴을 졸이며 이동합니다.

공군기지는 가장 매력적인 먹이 공급처

활주로는 전체적으로 저와 같은 여름철새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광활한 넓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주로 주변 환경은 비가 온 후에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배수로가 활주로 중앙에 위치해 있고, 활주로 주변에는 유수지나 하천이 있습니다. 또한 기지 주변에 대부분 농경지와 산이 가까이 있는 등 유인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기지 내에 살고 있는 우리를 전적으로 내몰지 못하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안전에 대해 모든 부서가 발 벗고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항중대의 조류퇴치반의 일부만 우리를 전담하고 있는 모습은 조류충

돌관리에 대한 관심 정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를 퇴치하는 방제방법은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던 방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총포를 이용한 포획이 대부분이어서 충분한 방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시카나 음향 등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과 시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유용한 방법들을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야생조수의 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문제로 전쟁과 흡사합니다. 이러한 전쟁을 몇 명의 운항중대 조류퇴치반 인원들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천과 산야가 되살아나 새들의 서식조건이 좋아지면서 우리 식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은 더욱 자주 도래할 것이며, 단 1%의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공군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서는 일부 담당자들이 있어서 늘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내용이 나의 동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인 줄은 알지만, 앞으로 우리들이 공군기지나 공항을 출입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조금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찌르레기에 대한 공군인들의 인식

우리가 이곳저곳 날아다니며 체득한 대부분의 조류 담당자들은 우리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먹이를 먹고 어느 곳에서 서식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고 하였습니다. 몇 년 전 친구가 전투기에 충돌하기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몰랐습니다. 사실 조류퇴치반원들은 날개달린 동물은 모두 퇴치하면 되는데 우리들의 이름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지요.

조류충돌방지활동은 대상이 야생 조수라는 것만이 다를 뿐, 실제 전쟁과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침투를 계속해서 허용한다면, 이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먹이활동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생존을 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에 조류충돌방지활동 프로그램의 수립과 수행 역시 실제 전쟁과 같아야 합니다. 야생조수와 전쟁 역시 이와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



봄에 우리나라를 찾아 온 찌르레기가 짝을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



먹이가 많이 있다고 동료들에게 알리고 있다.



부지런히 동료들 근처로 먹이를 찾아가는 찌르레기



데이트를 즐기던 찌르레기도 동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① 번식을 끝내고 무리를 지어서 먹이를 찾는 찌르레기들
 ② 번식을 끝낸 찌르레기들이 무리를 지어 활동하고 있다.
 ③ ④ 먹이 활동을 하는 찌르레기 수컷

입니다. 찌르레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서식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조류충돌방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적절한 환경 수정과 방제방법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공군의 상황이 열악하고, 이 모든 것을 단시간에 준비할 수 없다면 현재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1%의 위협을 낮추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동료의 귀중한 생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있을 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한 것처럼 조류충돌이 없을 때 조류충돌방지활동을 철저히 실행해야 합니다.

환경관리의 중요성

방제보다 우선 시 되는 것은 유인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생존과 번식을 위해 투자합니다. 즉, 우리 찌르레기들이 활주로를 찾는 문제는 바로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활주로는 자체로 매우 훌륭한 우리들의 먹이 공급처입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녹지는 우리와 같이 날개 달린 동물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넓은 녹지는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고, 확 트인 시야는 천적을 쉽게 파악하고 도망갈 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이지요. 또한 이러한 곳에서는 맹금류의 먹이가 되는 설치류가 많이 서식하여 이들을 유인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평지보다는 구릉지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바닷가를 제외한 내륙의 공군기지는 이러한 이유로 산과 산 사이에 대부분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산과 산 사이는 하천이 흐르게 되고, 이러한 하천이 활주로 주변에 흐릅니다. 또한, 활주로 끝부분 인접한 지역은 대부분 논 등의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여건은 등지에서 먹이를 구하러 오가는 각종 조류들의 이동통로로 이용하기에 적절하며, 활주로 중간에 녹지대와 배수로가 있는 것은 외부에서 조류를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우수지 관리

우수지는 배수로와 더불어 새들을 유인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수지는 가능한 활주로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배수로 또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공군 부대는 대부분 바로 옆에 하천을 끼고 있고, 특히 일부 비행장은 활주로 끝부분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지점에 하천이 지나가며, 넓은 우수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조류충돌에서 큰 피해를 주는 물새들을 유인하는 요소가 됩니다. 최근 배수로 위에 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새그물을 설치한 기지가 있는데 비용대비 효과가 적습니다. 우리들이 하늘에서 보면 그물은 보이지 않고 가까이 접근하여 몸에 닿아야 그물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2. 초지 관리

비행장의 초지 관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이루어지며, 비행안전 부서의 체계적인 초지 관리 계획에 의하기보다는 시설대 등 비행안전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자체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 공군은 초지의 높이를 15~25cm를 유지하고, 베어진 풀은 즉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야생조수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삭초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번 삭초 시 짧게 베어내고, 삭초된 풀도 그대로 놓아둔 상태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짧게 풀을 베어낸 초지는 새들이 먹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삭초 후 방치된 풀들은 작은 새들과 설치류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3. 서식지 관리

비행장 내에는 야생조수의 둥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먹이원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들의 둥지가 될 수 있는 나무의 가지치기 혹은 제거, 텃밭의 제거, 경작 금지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군 비행장 및 그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까치집과 텃밭들입니다. 비록 활주로와 약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나, 이는 위협 요소를 자체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4. 설치류 및 양서류 관리

쥐와 같은 설치류와 양서류들 자체가 비행에 커다란 위협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치류는 맹금류와 너구리, 고양이 같은 포유류를 유인하며, 황조롱이 같은 맹금류는 이런 먹이를 잡기 위해 공중에서 정지비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포유류를 피하다가 활주로를 이탈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을 방제하는 일은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과 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5. 기 타

야생조수 방제와 서식지 수정에서 많은 중요한 요소가 미흡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부대의 현실상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부대 외부의 지역들입니다. 조류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활주로 끝부분 2마일 이내 지역이 대부분 논 등의 경작지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다양한 협조를 통해 야생조수 유인 요소를

축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 내의 쓰레기 처리장과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점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퇴치 방법

이상 살펴본 방제방법의 특징은 첫째 대부분의 부대가 비슷한 방제방법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총포포획(혹은 폭음탄)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비슷한 방제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방제방법에 대한 정보의 부족도 한 원인이 되나, 자체 지역의 환경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고, 이에 맞는 방제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총포포획에 의존한다는 것은 경험에서 나온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총포포획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구와 방법을 적절히 병행, 배치, 관리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방제방법이 있으나, 각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요. 반대로 각각의 방제방법은 나름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기존의 것들을 활용할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사람이 변화·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부대 상공을 오가는 야생조류를 식별하지 못하고, 방제 도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활주로 위를 날아가는 우리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조류 담당자의 모습을 머리에서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야생조수 충돌 제로에 도전하는 공군의 모습이 되길 기대합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서식환경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자체 조류퇴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각 기지의 특성에 맞는 조류충돌방지활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 칼을 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승리의 기본이기 때문이지요.

끝으로 무더운 여름이나 매섭게 추운 겨울날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류퇴치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물론 저는 동료 새들에게 왕따를 당하겠지요...⁴⁾



지켜야만 하는 것

그림 김영은

○ 일일병영교육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편지」 中

웰링턴은 1815년 영국-프로이센 연합군의 사령관으로 나폴레옹 군을 워털루 전투에서 격파한 영국의 명장입니다. 여우사냥을 하고 있던 중 별 소득 없이 들판을 배회하던 웰링턴은 간신히 여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쫓고 있던 여우가 어느 농장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농장의 담이 꽤나 높았던 탓에, 말을 타고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웰링턴은 말머리를 돌려 농장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 농장의 아들로 보이는 한 소년이 문 옆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웰링턴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그러나 이 말에도 소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꿈쩍도 하지 않고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웰링턴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서 문을 열어라!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말에 소년은 아무런 말도 않은 묵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잠시 지체하는 사이 여우가 도망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웰링턴은 소년 때문에 여우를 놓쳤다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버럭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니! 나는 웰링턴 장군이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년은 황급히 웰링턴에게 인사를 했지만 다시 문을 열라는 장군의 명령에 소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담은 장군처럼 농장을 사냥터로 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쌓은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웰링턴 장군의 명령이라고 해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아니 장군의 말 이기에 더더욱 들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장군의 임무이듯이 담 너머의 농장을 지키는 것이 저의 일이자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맡은 책임에 대한 오압이 들어와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효율은 높이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과 원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오압에 굴복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400년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정호다완

글·사진 준위 전재인 | 제11진투비행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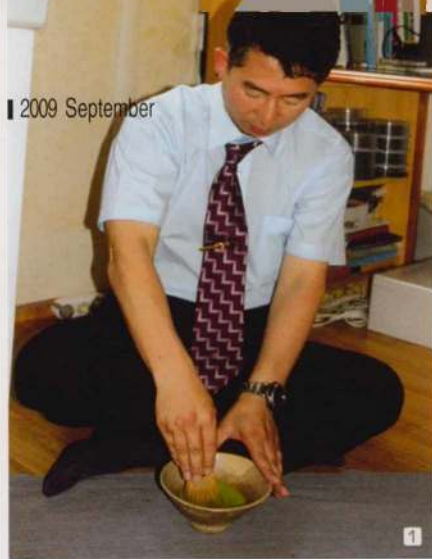
정호다완(井戸茶碗)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95년 대구 팔공산 파계사 주지스님께 “정 선생이 우리 민족의 혼과 다도 정신이 담긴 차 그릇인 다완(茶碗)을 소장 중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다. 그동안 수 차례 정호다완을 감상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오묘하게 인연이 닿지 않았다.

한 선배님의 도움으로 1996년부터 김해 장유에 있는 전통 장작 가마에 가서 흙을 수비(水飛-그릇 만들 흙을 물에 풀어 휘저어서 잡물을 없애는 일)하고 고막을 떠서 물레를 돌려 다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전통 장작 가마터를 14년간 찾아다녔던 정성이 통하였는지 지난 8월 14일, 400년 역사가 살아 있는 정호다완을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정 선생님 댁에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월간지 '차의 세계' 최석환 편집인의 안내로 한설 다례원 다향(茶香) 김미옥(金美玉) 회장, 동경호, 이영희, 이도겸, 박화춘 선생과 함께 감상하는 청복을 얻었다.

정호다완이라 하면 일본 다도에서 기모노 옷을 입고 다

미방에 무릎을 꿇고 숙련된 행동으로 예를 지키며 말차(抹茶-가루차를 솔로 저어 거품을 낸 것)를 손님에게 대접하는 행다(行茶)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이다. 이 때 사용하는 것이 다완이며, 이 다기(茶器) 중의 최고봉인 일본 국보 기자에몬 이도다완(喜左衛門 井戸茶碗) 대명물(大名物)은 조선 땅에서 14세기 무렵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전쟁 중에 일본인이 가져갔다.

현재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정호다완은 대략 200여 점이며 1급 보물 3점과 일본의 이도차완으로 역사가 소상히 기록되어 전해지는 70여 점 중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20여 점에 이른다. 기자에몬 이도다완(喜左衛門 井戸茶碗)은 1951년에 일본에서 국보(國寶)로 지정되어 현재 교토 대덕사에 소장하고 있다. 그것은 400년 전 조선시대에 오사카의 상인인 '다카다 기자에몬'이란 사람이 입수하여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무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에게 헌상했고, 히데요시가 죽은 뒤에는 무사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의 손으로 넘어 갔



1



2



53

3



6



4



5

- 1 정호다완에 말차하는 필자의 모습
- 2 역상각형으로 퍼진 사발형 다완을 감상하는 최석환 선생
- 3 말차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모습
- 4 굽이 있는 매화피
- 5 기자에온 이도다완, 높이 9.1cm 지름 15.3~15.5cm 무게 370g
- 6 바닥이 평면인 정호다완

다가 1615년경에는 혼다 노토노카미 다다요시에게 진상되었다. 그 후, 1643년 나가무라 소세스가 물려받았고, 1741년에는 쓰즈미 우지이에시게가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1775년 차 사발 수집의 대가인 마쓰다이라 후마이가 당시로 엄청난 금액으로 구입하여 다도회에서 수 차례 사용하여 대명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는 흥한 부스럽이 생겨 고생하다가 죽고, 1811년 그 아들 겿탄에게 물려주었으나 아들도 역시 부종을 앓게 되자 후마이의 부인은 차 사발에 한(恨)이 깃들어 있는 기묘한 기운을 감지하여 대덕사에 보관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2대에 걸쳐 고생해온 부종이 깨끗이 나았다는 전설을 간직한 신물이다.

약속한 3시에 우리 일행 6명은 정 선생님 댁에 찾아갔다. 거실에서 인사를 드리고 조용히 앉아 한참을 기다리자 정 선생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어느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들은 그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리를 잡으며 쉬고 있으니 정 선생님께서 가로 25cm, 세로 25cm, 높이 20cm 정도 되는 기름칠이 된 나무상자 하나를 안고 나오셨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방석 위에 상자를 놓으시고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상자 뚜껑을 열자 황금빛 천이 정호다완을 감싸고 있었다. 감격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다. 선생님의 손은 아주 천천히 움직였고 천하제일 대명물인 조선의 혼이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정호다완의 모습이 드디어 내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다. 당장 큰 절이라도 하고 싶었다.

우리들 일행은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석 위에 있는 신물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때

“한 번 만져 보세요.”라고 하시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받쳐 들었다. 그 순간 놀라운 느낌이 내게 전해졌다. 보기에는 크고 무거운 것 같았는데 마치 종이를 들고 있는 듯 너무 가벼웠기 때문이다.

다완 안쪽은 우물처럼 움푹해 끝없이 깊었고 촉감이 아주 부드러운 그 자체이며 은은한 유약의 색깔, 생동감이 물씬 풍기는 물레의 손자국, 그리고 굽에 자연스럽게 생긴 이슬방울과 같은 매화피는 가슴이 터지는 듯한 감동을 주었다. 평소 도자기에서 느끼는 매끄럽다거나 반질거리는 감과는 거기가 먼 태토(胎土)가 모습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어 금방이라도 다완을 만든 흙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듯 싶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우리나라의 흙으로 신의 경지에서 물과 불과 바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다기 정호다완을 사용할 기회가 주어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거실에는 햇볕이 사라졌으나 정호다완으로부터 피어나는 말차의 거품이 주는 신비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㉞

※ 다완(茶碗) 사용 후 보관 방법

1. 물로 다완 안쪽을 씻고
2. 전체를 다건(茶巾)으로 깨끗이 닦는다.
3. 다완의 습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4. 나무(오동나무) 상자에 넣을 때는 움직임이 없도록 한다.
5.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상자를 보관한다.



영어정복을 향한 유쾌한 한 걸음

-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를 다녀와서 -

글 상사 이성훈 | 16전투비행단 기지사원전대

영어하면 누구나 한번쯤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학창시절부터 영어를 좋아했지만 나는 군 생활 13년 차인 현재도 영어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항법장비 운용 및 정비를 위한 선진기술의 이해와 신형장비 전력화를 위한 외국제작사 직원과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항행안전시설¹⁾의 FAA비행점검²⁾을 위해 영어는 무엇보다 빨리 점령해야 할 '전략적 요지'였다.

틈틈이 아침마다 굿모닝팝스를 청취하며 영어라는 목표지점을 향해 진군하던 중 공군본부에서 실시하는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이하 '양평영어마을') 운영계획을 접하게 되었다. 군에서도 TOEIC, TOEFL 등의 영어능력시험점수보다 실질적인 영어회화 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인지하여, 영어로 말할 기회가 적은 장병들에게 회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영어마을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고 한다. 공군에서는 매년 3차에 걸쳐 약 200여 명의 장병들에게 외국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1주일간의 영어체험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 좋게도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된 '09-1차 Military Camp'에 입소하는 기회를 얻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꽃보다 남자의 F4가 다녔던 학교의 주요 촬영지였던 양평영어마을은 2008년 4월에 경기도 양평군에 6천800평 규모의 55개동 건축물로 구성되었고 친환경적 리조트로 교육체험장과 실내체육관, 수영장, 스키 시장, 야외음악당, 천문관측시설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어 상황별 영어 학습이 가능하다. 특히 이곳은 미국 버지니아 주의 건축양식을 모방한 생활관과 교실들로 인해 마치 미국 현지에 직접 온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고 이제 겨우

1) 항행안전시설 : 전술기지 항공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는 전술항법장비, 계기착륙장비, 항공관제레이더 등을 말한다.

2) FAA비행점검 : 미 연방항공청에서 실시하는 비행점검(Flight Inspection)으로 항행안전시설의 성능, 기능 및 계기비행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점검

1년밖에 안 된 최신시설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만족스런 캠프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사실 외국어학원에서 제공하는 5일간의 합숙프로그램인 Power Speaking Class는 오전에 교재를 바탕으로 영어의 귀를 뚫어주는 Listening, 입을 트이게 해주는 Free Talking time, 오후에는 다양하게 설정된 Theme Class (상황영어) 등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었다.

이번 캠프는 첫날 영어마을의 Washington Airport에서 영어원어민들과 입국심사와 영어인터뷰를 실시하여 자신의 영어올러움을 체험하게 했고 입소 행사를 통해 영어마을 내의 규칙과 생활 및 5일간의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2시간에 걸친 Written, Oral Test를 통해 개인별 수준에 맞는 Class로 배정을 하였고 한 반에는 20명의 학생들과 원어민·한국인 선생님 2명이 오직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였다. 오전 수업의 Power Listening은 영화, 노래, 토익 등 다양한 방식의 Listening 수업으로 진행되고, Power Speaking은 Dialogue, Substitution Drill, Discussion, Reading, Conversation 등 교재의 내용을 따라 수업이 진행되며 여러 흥미진진한 게임을 가미하여 개개인이 최대한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후 수업의 Drama Practice는 영어 연극 대본을 이용해, 영어를 할 때 감정과 동작까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3일 동안의 연습과 리허설을 거쳐 마지막 날에 실제 무대에서 공연을 하였다. C-6반에 배정되어 Beard King 연극을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영어에 접해가는 동료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각자의 배역에 맞춘 정확한 영어대본의 숙지와 발음, 억양 교정 과정을 통해 외국인 선생님들과 영어에 대한 좋은 추억을 쌓았을 뿐 아니라 직접 무대 위에서 영어로 말하는 기회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체험하는 Theme Class는 중학교 특별활동처럼 양평영어마을시설을 이용한 상황 영어로서 실제 요리를 통해 주방 영어를 익혔고, 잔디구장에서 원어민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함께하며 실생활에서 유용한 영어표현들을 사용해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터뷰 미션과 동기부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많은 원어민들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게 하였다. 캠프기간 동안 내가 인터뷰한 원어민 선생님만 20명 정도나 되었으며 이것이 실제 Speaking 훈련과 원어민 울



렁증 탈출에 도움이 된 건 자명한 일이었다.

본인이 체험한 양평영어마을에서의 일주일은 영어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해주었다. 일주일이지난 지금, 그때를 되짚어 볼 때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 '영어로의 무거운 진군보다는 오히려 유쾌한 한 걸음이 영어에 다가서는데 더 빠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이다. 오늘도 원어민과 대화하던 그때를 추억하며 굿모닝 팝스를 펼친다. ㉞



Letters to the Editor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생각하는 그림〉에서 다룬 '14일간의 목발 마라톤'을 읽고 이라크 참전용사로부터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고 군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느꼈습니다.

- 충남 서산시 전성운 -

#4

〈이등병이 쓴다〉에 '이등병이 이등병에게'를 보며 아들들이 공군에서 군복무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군대 가서 가장 힘들어 하는 이등병들을 배려하는 깜짝 이벤트코너가 군 생활을 긍정적으로 만드리라 생각합니다.

- 전북 전주시 서채진 -

#7

〈기획특집 2〉를 보며 공군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리모델링한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절로 웃으면서 치료를 받는 것 같아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아플 때 어머니처럼 안아주는 의료시설로서도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 공군에 지원을 많이 할 것 같네요.

- 경남 진주시 양우임 -

#2

〈Beauty 바이러스〉에 '스킨의 힘을 믿으세요'를 보면서 정인 상병의 감각적이고 유익한 정보에 감사합니다. 피부도 실제로 사진만큼 고울 것 같네요.

- 서울시 영등포구 박이숙 -

#5

공군지 표지에 '항공우주의료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여군의 당당한 모습이 든든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여군 장교 및 부사관의 역사적 흐름을 기사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 대전시 중구 이민경 -

#8

〈기획특집 1〉에 'F-51 무스탕을 찾아서'를 읽고 공군 전투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이 「조종사의 날」임을 알았으며 자녀에게 조국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 여름 방학에 F-51 무스탕이 전시된 곳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오겠습니다.

- 전북 전주시 이순호 -

#3

〈World-Wide Vision〉에 실린 미군 전투기지원 공군요원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민간인인 본인에게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이선미 -

#6

〈기획특집 2〉에 항공우주의료원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군대는 더 이상 신체와 마음이 상하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앞으로 더욱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 강원 강릉시 이춘식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6935, 02) 506-693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9월호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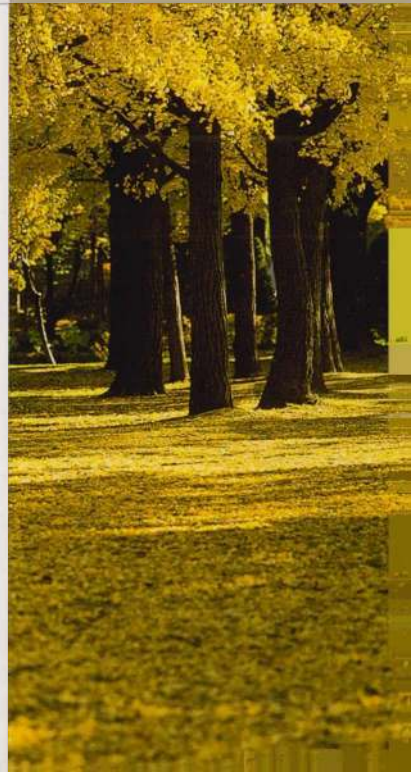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9월호 퀴즈정답

1.

2.

3.



Quiz

월간 「공군」 9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9월 30일까지

1. 2011~'12년에 도입 예정인 조기경보기 E-737의 애칭은 무엇인가?
2. 공군을 상징하는 '빨간 마후라'의 작사자이자 영화시나리오의 작가로 지난 8월 11일 노환으로 향년 87세에 별세한 인물은 누구인가?
3. 1982년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일본과 대만에 이어 3번째의 전투기 생산국으로 이름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던 항공기의 명칭은 무엇인가?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tribune44@gmail.com(인터넷)
tribune44@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 02-506-6935/042-552-6935

※ 7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고성, 강릉, 무안, 청원, 전쟁기념관
2. 글로벌 호크
3. 이원복 소령

퀴즈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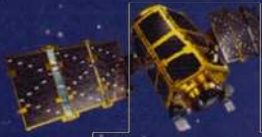
강원 강릉시 이춘식
대전시 중구 이민경
전북 전주시 서채진
서울시 영등포구 박이숙
서울시 구로구 이선미
경남 진주시 양우임
충남 서산시 전성운
전북 전주시 이순호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기무사령부
(☎ : 1337, www.dsc.mil.kr)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를!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09

October 20-25, 2009 | Seoul Airport



*"Only one tri-service exhibition in Korea and
the most representative exhibition in Asia-Pacific"*

